

#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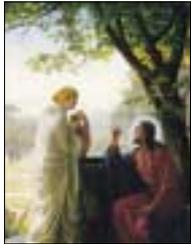
더 좋은 언약의 보증,  
2쪽

캐나다 마니토바에서  
음악을 연주함, 18쪽



**구** 세주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앞 표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치신 후에(위), 사도 베드로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35)라는 간증을 얻었다. “신약이 더 좋은 언약인 이유는 그것의 많은 부분이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성령의 속삭임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정확시키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더 강화시켜 줍니다. 성신의 권세에 의해 마음과 생각에 아무런 증거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간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더 좋은 언약의 보증”, 2쪽 참조

# 리아호나



## 걸 표지

앞: 칼 하인리히 블로흐,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덴마크 힐러뢰드 소재 프레드릭스보르그 국립 역사 박물관 제공. 뒤: 로버트 티 배렛,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치시는 그리스도.



## 친구들 표지

삽화: 마크 더블류 로비슨



“신앙으로 가르침”, 10쪽 참조

##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10 신앙으로 가르침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함
- 30 파블로 할아버지를 찾아서 *라켈 페드라사 데 브로시오*
- 32 예수님의 비유들: 품꾼들 *헨리 에프 아세베도 장로*
- 36 초기 사도들의 말씀: 교회를 세움  
*리처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
- 40 말일성도의 소리  
아버지가 받은 용기의 훈장 *엠마누엘 플렉킨저*  
딸의 기도 *카리 앤 라스무센*  
용서를 통해 평화를 찾음 *익명*  
질은 안개 속의 나침반 *린 총 텅*
- 44 지극히 작은 자에게 *빅토르 길레르모 차우카 리베라*
- 48 리아호나 2003년 9월호 활용하기

## 청소년란

- 7 포스터: 강한 고리가 되십시오
- 8 행운을 발견함 *디 렉스 게렛 장로*
- 18 한 음 한 음식 *새나 가즈나비*
- 22 사랑으로 *스테파니아 포스티클리오네*
- 24 아이디어 목록: 상호 향상 모임을 잘 활용함
- 26 불공평의 벽을 넘어서 *채드 모리스*
- 47 알고 계십니까?

## 친구들란

- 2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눈 위의 발자국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4 함께 나누는 시간: 의의 일 하세  
*비키 에프 마쭈리*
- 6 우리를 보살펴 주신 선생님 *탤라 플레이크 크리서*
- 8 온 세상에 *젠 핀보로우*
- 10 신약전서 이야기: 사악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죽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다
- 14 친구가 친구에게: 우린 초등학교에 갈거야  
*로버트 알 스투어 장로*
- 16 성전 카드



“눈 위의 발자국”, 친2쪽 참조



그리스도께서 두 제자를 부르심, 게리 이 스미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태복음 4:18~19)



# 리아호나 2003년 9월호, 제9호

23989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화: 보이도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날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셀 비 워스킨, 리차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디 아이어링

편집인: 데니스 비 노인슈타인  
고문: 이 레이 베이트먼, 몬티 제이 브러프, 제이 이 쟈슨, 스티븐 에이 웨스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리스네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차드 엠 롬니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콜리트 네베커 오온, 수잔 브렛, 라이언 카, 린다 스칼 쿠퍼, 라켄 포터 곤트, 사나 가즈나비, 제니퍼 엘 그린우드, 리사 앤 잭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샬리 제이 오데커트, 애덤 시 울슨, 쥬디스 엠 팔라,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와일, 킴벌리 웰, 모니카 엑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렌 프랫,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블 보트,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브렌트 크리스티슨, 새리 쿡, 캐리 린 시 헤린,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슨, 랜들 제이 픽스톤, 마크 더블류 로비슨, 브래드 커어,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슨

통 권: 제 450호, 제 40권, 제 9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3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중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제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국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름)  
© 200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September 2003 No. 9.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 리아호나를 잘라 사용하기

리아호나는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 책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가정의 밤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친구들에서 얻습니다. 이 곳에 있는 자료들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게임과 활동의 일부로 이야기나 그림을 잘라내야 할 때에는 뒷면에 있는 것들을 못쓰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잘라낼 때 다른 면에 있는 자료들이 손상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막달레나 벨라스케스 데 세르반테스,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 노스 스테이크,  
프론테라 와드

편집자 의견: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자주 받으며 이야기나 기사를 자르는 것이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다른 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잘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할 경우 16쪽에 달하는 면을 백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잘라서 사용하더라도 가능한 한 다른 것에 손상을 적게 주도록 편집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독자들은 게임이나 활동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복사하여 잘라 쓰기도 합니다.

## 러시아에서 보낸 감사의 편지

우리는 우리 지부에서 봉사하는 전임 선교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고장은 이 장로들과 자매 선교사들로 인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영혼을 구하기 위해 따뜻한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한 친구들을 두고 떠나 왔습니다.

우리는 영어 회화반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포함한 여러 학교에 영어 교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과 병원에서의 연로한 분들을 위한 선교사들의 봉사에 대해서도 칭찬의 말을 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깊고 강한 신앙입니다.

그토록 훌륭하고 헌신적인 젊은이들을 키워 주신 그들의 부모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직함과 성실한 모습, 관심과 보살핌, 자상한 마음과 능숙한 솜씨, 그리고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선교부,  
수르구트 지부 회원 일동

## 계속 발전하도록 해 주는 영감의 근원

저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학업 때문에 집에서 멀리 떠나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생활한다 하더라도 제 영혼을 선한 동기로 가득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아호나입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 발전하도록 해 주는 영감의 근원입니다. 거기에는 격려의 음성이 담겨 있고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살도록 도와 줍니다.

레닌 엔리케 콜로니아 코르도바,  
페루 카자마르카 스테이크,  
푸에블로 리브레 지부



GOSPEL ACCORDING TO MATTHEW

...and Jesus said unto them,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soever followeth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but shall have the light of life.

...and Jesus said unto them,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soever followeth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but shall have the light of life.

...and Jesus said unto them,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soever followeth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but shall have the light of life.

#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사과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실행해야 하는 엄격한 형식으로부터 벗어나 성령 안에서 영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러한 전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히브리서 7:19, 22; 또한 요셉 스미스 역, 히브리서 7:19~20 참조)

우리가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어려운 교리들, 즉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영성을 지니도록 들어 올려 진다는 점을 공부하고 가르침 받고 실천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

보증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보증이란 “확실한 상태”, “약속의 성취를 위해 주어지는” 표시이며, 그것은 또한 “채무,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 불이행, 혹은 태만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sup>1</sup> 이 모든 것들이 구세주 및 그분의 사명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언약(testament)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과의 성약입니다. 그것은 또한 거룩한 경전, 유언, 증언, 유형의 증거물, 확신의 표시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sup>2</sup>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 좋은 성약을 맺는 데 있어 우리의 구세주는 보증인과도 같습니다.

## 더 어려운 교리

신약이 “더 좋은 언약”인 이유는 인간의 의도만으로도 그것이 의로움 혹은 그릇됨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려는 의도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은 행동과 별개의 요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의도한 바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8:109) 그렇듯 의도만으로도 유죄가 입증되는 예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태복음 5:27~28)



우리가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어려운 교리들, 즉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영성을 지니도록 들어 올려 진다는 점을 공부하고 가르침 받고 실천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원문: 배경 촬영, 제드 에이 클라크; 그림: 하인리히 호프만, 그리스도와 무유한 젊은 관원의 일부; 오른쪽: 사진 촬영, 돈 부셔스

이러한 새로운 언약은 보다 어려운 교리입니다.

영국의 역사를 보면 보통법의 집행에서 야기된 형식과 엄격함 때문에 정의를 얻기 위한 형평법이 발전되었습니다. 평등에 관해 제가 좋아하는 격언 중 하나는 “평등은 마땅히 행할 일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신약(새로운 언약)은 형평법의 개념보다 더 차원이 높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미 행한 것뿐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행했어야 할 것에 의해서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더 높은 율법

신약의 더 높은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의 많은 부분을 산상수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분의 율법은 사람이 그에게 나아오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을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태복음 5:23~24)

더 어려운 교리의 다른 예는 맹세하는 것을 완전히 금하는 다음 구절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마태복음 5:33~34, 37)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신약의 더 어려운 교리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39~40, 43~44)

구세주께서는 신약에서 새롭고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마태복음 6:7~13)

또한 구세주께서는 신약에서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더 좋은 방법으로, 즉 은밀히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태복음 6:3~4)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과제이자 가장 어려운 교리는 역시 산상수훈에 있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

구세주께서는 “새 언약의 증보자”(히브리서 9:15)로서 결혼에

관해 더 높은 율법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구세주께서는 “새 언약의 증보자”로서 결혼에 관해 더 높은 율법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과제는 “말지니라”라고 하는 엄격하고 기계적인 모세의 율법을 “더 좋은 언약”의 정신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마가복음 10:2)라고 여쭙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가복음 10:6~9)

### 커다란 과제

예수께서 주신 과제는 “말지니라”라고 하는 엄격하고 기계적인 모세의 율법, 즉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고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했던 율법을 “더 좋은 언약”의 정신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야 했습니까? 시간이 짧았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오직 3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시작하셔야 했을까요? 그분은 장차 이 사업을 책임지게 될 사도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수의 제자들과 더불어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대관장단 보좌였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1871~1961)은 이 과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일은 유대인에게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모세의 율법을 타파하여 실질적으로 금지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환시키는 일이었습니다.”<sup>3</sup>

그것은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마의 예는 사도들도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여러 차례 구세주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요한복음 20:25) 이러한 기적은 예전에 결코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용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인을 위한 것이라는 위대한 원리를 빨리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베드로후서의 다음 기록과 같이 친히 본 자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신** 약의 더 높은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의  
 많은 부분을 산상수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베드로후서 1:16) 그는 무엇을 친히 보았습니까? 그는 구세주께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모든 것을 친히 본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는 것과,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을 환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요한복음 4장 참조) 그러나 베드로는 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사도행전 10:15)는 구세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고 영적인 확신을 얻게 되자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사도행전 10:34~35)라고 간증했습니다.

사도들은 결국 “더 좋은 언약”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로서 행한 그들의 심오한 선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증언은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더 높은 율법을 믿는 우리 신앙의 기본 원리를 형성합니다.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도들의 간증을 되새겨 보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강화시켜 줍니다. 이 간증들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입니다. 예를 들면, 구세주께서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에게 그분과 그분의 교리가 생명의 떡이었음을 분명히 가르치셨던, “위대한 생명의 떡” 설교 후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요한복음 6:66~69)

구세주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간증이 개인적인 영적 확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 오늘날 우리의 과제

신약이 “더 좋은 언약”인 이유는 그것의 많은 부분이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성령의 속삭임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정화시키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더 강화시켜 줍니다. 성신의 권세에 의해 마음과 생각에 아무런 증거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간증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신약에서 가르치신 어려운 교리들, 즉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영성을 지니도록 들어 올려 진다는 점을 공부하고 가르침 받고 실천합니다. ■

## 주

1.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0판(1993), 1185쪽.
2.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218쪽 참조.
3. Why the King James Version(1956), 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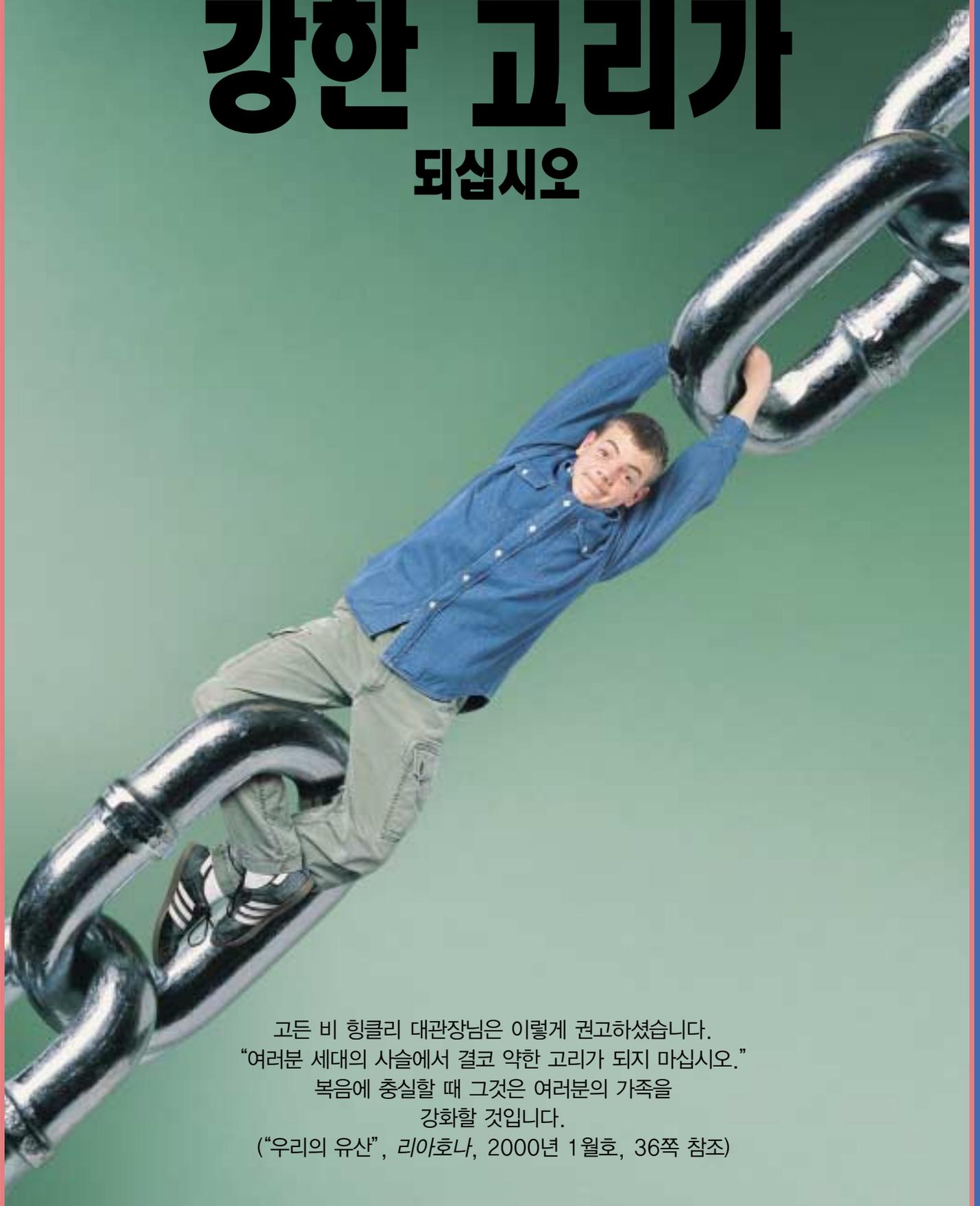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메시지를 전한다.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에게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언급한 더 어려운 교리와 더 높은 율법을 읽고, 그에 따라 생활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토론한다. 마지막 두 단락을 읽고 토론한다.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신약의 교리에 관한 여러분의 간증을 전한다.

2. 성경을 보여 주고, 가족에게 신약과 구약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도록 권유한다. 이 두 책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이 메시지의 처음 세 단락을 읽는다. 신약이 “더 좋은 언약”인 이유에 대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가르친 내용 몇 가지를 나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여 주고 신약전서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 강한 고리가 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대의 사슬에서 결코 약한 고리가 되지 마십시오.”  
복음에 충실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산”,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36쪽 참조)

# 행운을 발견함



디 렉스 게렛 장로

칠십인 정원회

**10** 달러  
짜리  
지폐  
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열** 서너 살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는 학교에서 두 블록 정도 떨어진 식료품점에 갔습니다. 그 곳에는 정말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반 친구들과 저는 점심 시간이면 종종 두 스푼짜리 아이스크림 콘을 사러 그 곳에 가곤 했습니다.

그 날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받아 들었을 때 저는 제 발 옆에 10달러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50년 전, 청소년에게 10달러짜리 지폐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10달러짜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봐.”라는 말로 저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에 사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집어 계산대에 있는 사람에게 주면서 바닥에서 주웠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참 정직하구나. 여기 네 이름을 적어 두고 이 10달러의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네게 돌려주도록 하마.”

그 날 오후 한 소년이 그 여인에게 와서 혹시 10달러짜리 지폐를 못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보았지. 여기 그 돈을 주운 사람의 이름이 있단다.” 하고 알려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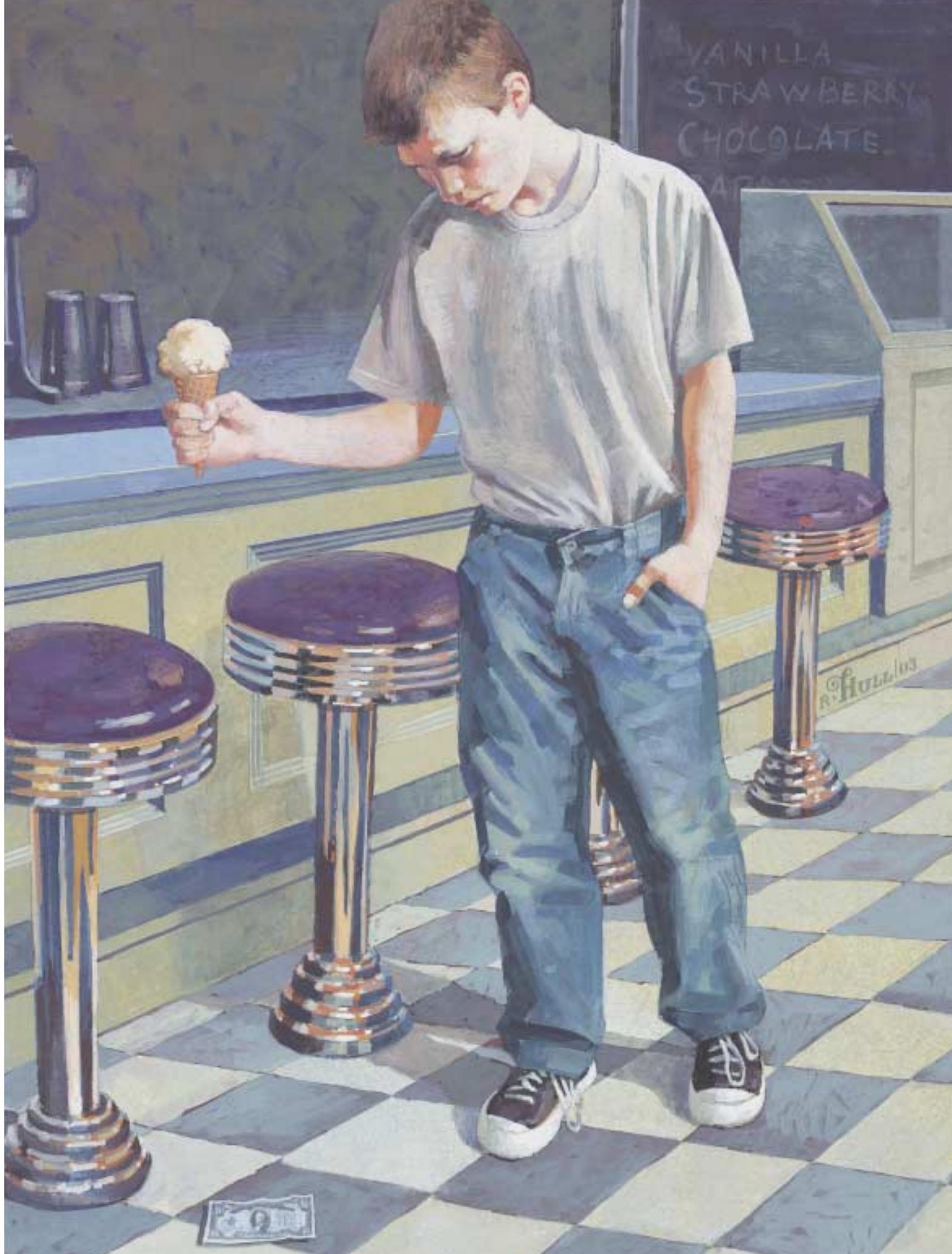
그 소년은 저를 찾아와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우리의 우정과 저에 대한 호감으로 인해 저를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을 하게 되자 그들의 가족들과도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10달러짜리 지폐 하나로 열 가족 내지 열두 가족쯤 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정들을 방문하기도 했고 감독으로서 그 가족의 몇몇 자녀들을 접견하기도 했으며 지난 50년 동안 성전 결혼과 여러 가족 행사에 초대를 받아 그 자녀들뿐 아니라 부모들과도 훌륭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훌륭한 가족이었습니다.

훌륭하신 부모님께서 정직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덕분에 그 10달러짜리 지폐를 가지라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직으로 인해 제 생애에 주어진 축복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직은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저는 항상 정직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느낌입니다.

저는 아홉 명의 제 자녀들에게 정직에 관해 가르치면서 “10달러짜리 지폐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지 너희들은 모른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액면가를 갖고 있지만 그 가족과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의 가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에 있어 참으로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



# 신앙으로 가르침



비록 아빈아다이가 영으로 가르치기는 했지만 노아 왕은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마는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영으로 가르치고 증거할 때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영으로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그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삶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의 책임은 막중하며,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사는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의로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교사와 부모로서 우리는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도록 복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할 경우, 영은 늘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가르칠 때 청소년들은 영을 느끼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삶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사이야서를 통해 사악한 노아 왕 앞에 묶인 채 서 있는 아빈아다이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빈아다이는 영이 고조된 상태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회개의 원리를 담대하게 가르치면서 단호하고 구체적인 경고의 말을 전했습니다. 비록 아빈아다이가 영으로 가르치기는 했지만 노아 왕은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마는 마음을 돌이켰습니다.(모사이야서 12:9~17:2 참조)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지 알 수는

없지만, 영으로 가르치고 증거할 때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신앙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모든 개념과 간증하는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성신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가르치고, 영으로 가르치며, 담대하게 간증해야 합니다.

##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십시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복음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복음의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여 행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사로서 우리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사로서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생각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제가 열 살쯤 되었을 때의 주일학교 공과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커다란 카드를 받았는데 그 안에는 각각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즉 다윗과 골리앗, 창조, 다니엘과 사자굴 등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조그마한 책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된 긴 연재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읽고서 토론할 준비를 갖추고 주일학교로 왔습니다.



그림: 아놀드 보클린, 노아 왕 앞의 선 이방인의 일부

저는 오늘날까지 그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각 이야기에 대한 토론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구 [혹은 이야기나 원리는 여러분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가르침을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일단 이러한 질문들을 자녀들에게 하고 나면 그들이 가르침 받은 대로 생활하기 위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야기만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교사는 각 사람의 내면에 신앙의 씨앗을 심어 주고 또 그것이 자라나도록 도와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의 내용을 이야기 형태로 가르치고, 그것을 젊은이들의 생활에 적용시키도록 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필요한 시기에 이러한 이야기와 복음 원리의 진리들을 기억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존 그린리프 위티어는 다음과 같이 감동적인 글을 썼습니다. “말이나 글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슬픈 표현 가운데 가장 슬픈 것은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다.”<sup>1</sup> 사람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것을 돌이키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고, 구원의 계획을 모르고, 그들이 이 지상에 있는 이유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채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이 위대한 계획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인생의 모든 시험을 견디어 내고, 원수의 불화살을 물리치며, 끝까지 견디어 냄으로써 행복을 위한 계획의 최종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색의 중요성과 힘을 가르치십시오. 사색하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청소년들에게 영에 의해 주어진 생각과 느낌, 그리고 스스로 느끼는 바를 묘사하게

하십시오.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고 간증하게 될 때 신앙을 증진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와 경전 공부의 중요성에 대한 공개 토론을 하여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지지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발전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형이나 언니, 혹은 친구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갖게 하고, 경전에서 예를 찾아주어 그들이 스스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전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생기는 모든 일에 대해 말해 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 청소년에 대해 알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친숙해지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아는 교사들은 학생들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훌륭한 교사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배우고, 기꺼이 잘못을 고치며, 교사의 염려와 권고에 감사를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교사로서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또 영원한 구원을 위해 그들의 잠재력을 성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과 당면한 문제들을 알아야 하며,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 언제 자신의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할 준비가 되고 결정을 내릴 힘을 갖게 되는지 알도록 하십시오. 가르치는 단계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들이 장차 겪게 될 어려움에 대비하도록 돕기 위해 그 방법을 미리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필멸의 준비 기간 동안 시험과 시련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위대한 영웅 아킬레스는 호머의

**훌륭한 교사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고민과 당면한 문제들을 알아야 합니다.**



일리아드에 나오는 영웅이었습니다. 아킬레스에 관한 호머의 기록 이외에도 아킬레스와 그의 모친인 테티스에 관한 다른 우화 혹은 민간 설화가 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테티스는 아킬레스를 스틱스 강물에 담가 불멸의 존재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아킬레스가 다치지 않게 하는 데 성공했지만 자신이 손으로 잡고 있던 그의 발뒤꿈치만은 예외였습니다. 아킬레스는 엄청난 힘을 가진 무적의 용사로 성장하여 완전 무장을 하고 트로이 군을 공격하는 그리스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아킬레스의 죽음은 호머의 오딧세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그가 죽은 이유를 파리스가 쏜 화살을 아폴로가 그의 유일한 약점인 발뒤꿈치로 유도하여 맞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모나 교사는 원수의 불화살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비결을 찾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필멸의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들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배움을 경험하고 반대에 부딪치는 것은 우리를 패하게 하거나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인생의 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신앙을 키우십시오

시험을 받는 어려운 시기에 성신의 부드러운 권유와 위안과

평안과 인도를 잃게 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러한 느낌은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이겨 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준비시켜, 어려움이 닥칠 때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범사에 서로 상대되는 것이”(니파이이서 2:11)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베소서 6:11, 13; 교리와 성약 27:15 참조)를 입고, “성령의 검”(에베소서 6:17; 교리와 성약 27:18 참조)과 “믿음의 방패”(에베소서 6:16; 교리와 성약 27:17)를 가지고, “원수의 불길 같은 창”(니파이일서 15:24; 교리와 성약 3:8; 에베소서 6:16 참조)을 이겨 내고, 끝까지 견디어,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경전에는 이러한 교훈을 잘 배우고, 고요하고 작은 경고에 귀를 기울인 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리하이와 그의 가족도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악한 상황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바벨론, 즉 악하고 세상적인 상황에 부분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을 많이 만났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러한 바람이 지나친 나머지 우리의 의지로 그러한 일을 이루려 애씁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억지로 신앙을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그것을 받고자 하고 우리의 삶에서 행사하고자 하는 소망에 근거를 두고 내부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우리는 영을 통해 지속적인 신앙을 갖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소망만으로 누군가를 복음 안으로 데려오려 합니다. 그것은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사는, 일단 사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게 한 후에, 그들이 마음에 영적인 증거와 이해를

얻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된 단계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것이 질문과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이해 정도를 헤아릴 때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각 젊은이가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길에 가 있게 될 때까지는 자신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때 그들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 모로나이는 이제 이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리다. 내가 세상에 밝히 전하고자 하거니와,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야 증거를 얻겠음이라.”(이더서 12:6)

우리가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계명에 순종하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이유는 시련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목장 주인이 새로운 목동을 구하기 위해 여러 명의 후보자를 면접 했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 사람이 “전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고용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곧 엄청난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맹렬한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목장 주인은 목동 숙소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은 새로운 목동이 그 와중에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그는 목동에게 심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목동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고용하실 때 폭풍이 불더라도 잘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장을 살펴본 주인은 모든 가축이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고, 모든 장비와 건초가 방수 덮개로 덮여 있으며, 건물도 안전하고,

모든 것이 단단하게 묶여 있는 것들을 보며 목동이 이미 모든 것을 손보아 두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새 목장을 둘러본 주인은 “전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라고 한 목동의 말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신앙을 갖도록 도울 때 우리는 그들이 폭풍, 즉 다가올 인생의 폭풍을 견뎌 내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뎌 내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엘라 힐러 윌콕스는 “운명의 바람”이라는 제목의 통찰력 있는 시를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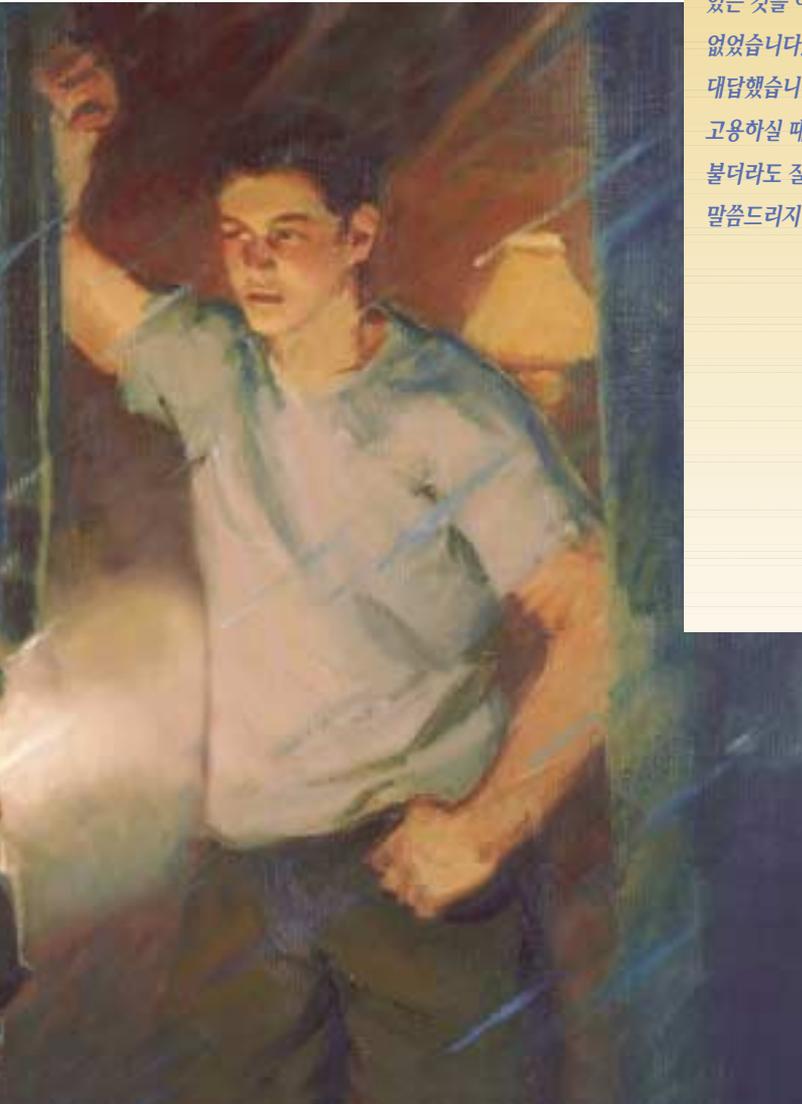
같은 바람을 타고  
한 배는 동쪽으로 다른 배는 서쪽으로 나아간다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말해 주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이다.

우리가 인생을 향해할 때  
운명의 길도 바다 위에 부는 바람과 같으니  
인생을 평온하게 살 것인지 힘들게 살 것인지  
그 길을 정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sup>2</sup>

사나운 폭풍이 우리 인생에 불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우리 젊은이들의 삶에 불어올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폭풍을 이겨 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 기본적인 원리,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기도, 공부, 사색,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그리고 회개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용서 받을 수 있다는 원리를 가르치고 또 그들이 그것을

**엄** 청남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맹렬한 폭풍이 불어왔을 때, 목장 주인은 새로운 목동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목동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고용하실 때 폭풍이 불더라도 잘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

### 간증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곧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때 우리는 간증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증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대한 간증을 심어 주는 훌륭한 교사의 모범 없이 그저 자동적으로 대대로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이 그러한 간증을 마음속 깊은 곳에 전해 줄 때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핏속에 흐르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것은 가르침을 받고 믿으며 결국에는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기회를 줍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1856~1945)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할 당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상속자로 태어났으며,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들은 복음의 지식 안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참된 교리가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말일성도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요청이 아니라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시온의 주민이나 조직된 시온의 어떤 스테이크에 사는 주민에게도 하나의 율법이 되리라.

“저들의 자녀는 여덟 살이 될 때에 죄 사함을 위하여 침례를 받고 인수를 받아야 하느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25~28 참조]<sup>3</sup>

교사들은 이러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들을 돕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의 경우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없어서 교사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교사가 모범과 복음 지식을 주는 주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청소년과 독신 성인들은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며 스스로 간증을 얻는 일에 인도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각 교사는 천사처럼 되고자 하는 소망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피리부는 자의 역할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자신의 주변에 불러모아 사랑으로 그들에게 간증을 갖게 하고, 인기 있는 사람일 경우 자신이 청소년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면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사랑과 관심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 돌릴 때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때때로 새로운 개종자가 선교사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나 선교사가 떠나거나 복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그들은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의 간증은 약해지고 신앙도 사라지게 됩니다. 참으로 훌륭한 교사는 학생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일단 청소년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나면 그들이 기도와 공부, 그리고 복음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복음의 지식은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에 관한 모든 것으로 자신을 더 발전시켜, 신앙과 간증으로 다른 사람들을 들어올리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지식, 충실함, 영성, 그리고 힘을 통해

**우** 리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에 관한  
모든 것으로 자신을 더  
발전시켜, 신앙과 간증으로  
다른 사람들을  
들어올리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들은 더 훌륭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승영의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동반자,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 즉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동안 신권은 지상에서 다시는 거두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말일이 되면 구세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큰 힘을 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35,38~39절)

신앙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신앙을 얻는 방법과 그

신앙을 항상 지니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율법과 의식에 따라 생활하려는 순종을 통해 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7)

여러분이 이 위대한 사업에 관해 가르치고 간증을 하며, 다음 세대의 성도들과 부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주님의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준비시킬 때, 그들의 영적인 필요 사항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도를 구하는 그들의 간구를 듣고 그들의 삶에서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의로움으로 인도할 때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일상 생활에서 복음대로 생활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

2002년 2월 1일 유타 주 바운티폴에서 교회 교육 기구 지도자들에게 전한 말씀에서

주

1. “Maud Muller”,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Whittier*(1894), 48쪽.
2. James Dalton Morrison, ed., *Masterpieces of Religious Verse*(1948), 314쪽.
3. “Duty of Parents to Children”, *Deseret Weekly*, 2 June 1894, 733쪽.

# 한 음 한 음씩

미카 우그토(맨 오른쪽)를 비롯한 런던 와드의 청소년들(오른쪽)은 와드에 반주자가 아무도 없었을 때 와드를 돕기 위해 앞장 섰다. 그들은 일요일 모임에서 사용할 피아노와 오르간 연주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매니토바에 있는 청소년 반주자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와드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치게 되었다.

새나 가즈나비  
교회 잡지

**캐**나다 매니토바 위니펙에 있는 런던 와드의 모든 회원들이 예배당에서 오르간 반주에 맞춰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는 참으로 아름답다. 오르간 반주자는 열세 살 된 마빈 카르도나이다. 런던 와드에서는 음악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와드 청소년이 반주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몇 달 전까지 이 와드에서 반주 없이 혹은 교회에서 제작한 찬송가 테이프를 틀어 놓고 찬송가를 불렀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이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와드에 있는 청소년이 반주하는 것을 좋아한다. 17세 된 앤드루 카르도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전에는 종종 [테이프 반주와] 박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이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 덕분에 더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13세 된 재키 패미니도 그 말에 동의한다. “테이프를 듣는 대신 누군가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하게 돼서 좋아요.”

런던 와드가 다른 와드에서 분리될 때 와드에는 회중들을 위해 오르간이나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이 힙 장로와 자매였다. 그들은 부부 선교사로서 그들이 떠나고 나면 반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음악 교습을 해주기로 했다.

와드에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배우기를 원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교습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도 피아노를 치고 싶었기 때문에 힙 자매에게 부탁드렸더니, 승낙해 주셨어요.”라고 15세 된 세리 카르도나는 말한다. 현재 세리는 청녀 모임 개최 순서에서 와드의 다른 청녀들과



청소년들은 와드에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봉사 정신과 찬송가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감동을 줄 때 자신의 내부에도 변화가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른쪽: 조나단 패미니.  
맨 오른쪽: 세리 카르도나.



교대로 키보드를 연주한다.

17세 된 레이간 패미니는 14세 된 동생 조나단과 신권회에서 교대로 피아노 반주를 한다. 레이간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반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선교 사업을 나가서도 반주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는 제 간증을 강화시켜 줍니다.”

와드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을 가르쳐 준 힙 장르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들은 힙 장르 부부가 훌륭한 음악 교사일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라고 말한다.

#### 어떤 일이라도 너는 할 수 있어

조나단은 힙 장르 부부에게 교습을 받았을 때

동기를 갖고 있었다. “처음에는 교습을 받는 것에 대해 그다지 흥미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싶어했지만 마빈이 늘 저보다 피아노를 잘 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이미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마빈과 조나단은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많은 일에서 선의의 경쟁자였다. 조나단이 힙 장르 부부에게 교습을 받는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안 마빈은 그에게 자기보다 더 잘해 보라고 권고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만큼 잘 할 수 있나 보자. 난 네가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 보고 싶다.’”

그러자 조나단은 마빈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저는 일단 한번 해 보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처음 시도를 하고 나자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연습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으며 피아노를 잘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연습을 하지 않고도 곧잘 칩니다.”

물론 마빈이 그에게 동기를 주었지만 조나단은 그가 연주를 좋아하는 진정한 이유는 경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연주할 때 영을 느낍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격려하고, 모든 사람의 생활에 음악을 가져다주며, 그들을 행복하게 해 줌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기쁨과 위안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빈의 경우, 크고 어려운 임무가 그를 준비시켰다. 그의 부름은 성찬식에서 오르간 반주를 하는 것이다. 그는 발 페달을 사용하여 오르간 연주를 할 수 있으며, 오르간의 소리를 조정하는 건반 옆의 작은 단추들도 모두 사용할 줄



안다. 그는 매주 와드 음악 책임자와 함께 다음 안식일에 부를 찬송가를 선정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네 개의 곡은 적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곡이 어려울 때에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마빈은 연주를 좋아한다. 그는 좋은 음악, 특히 찬송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조나단의 생각에 동의한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한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 피아노를 연주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에 더 오래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

런던 와드의 청소년들은 와드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자신의 생활이 봉사를 통해 훨씬 좋아졌다는 것을 느낀다. 세리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배운 것을 인정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피아노를 연주할 줄 아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16세 된 미카 우그토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있거나 교회의 기초 음악 과정을 밟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격려한다. “인내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조나단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을 천천히 해야 합니다. 한 음 한 음씩 말입니다.”

다른 재능과 마찬가지로, 악기 연주를 배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과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 “한 음 한 음씩” 배워야 한다. ■

새나 가즈나비는 브리검 영 대학교 제2스테이크, BYU 제61와드의 회원이다.



## 찬송가를 부름

“영감을 주는 음악은 우리 교회 집회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찬송가는 주님의 영을 불러들이며, 경건한 느낌을 갖게 하고, 회원들을 하나가 되게 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훌륭한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 찬송가는 우리가 회개하고 선행을 하게 하며, 간증과 신앙을 키우며, 지친 자를 쉬게 하며, 애통하는 자를 위안해 주며,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내도록 영감을 줍니다.

“... 우리는 모든 회원이 음악적인 재능에 상관 없이 찬송가를 부르는 데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대량장단, 찬송가 ix쪽.

# 사랑으로

우리 사이에 “불화의 짐”이 찾아왔다. 그것은 내가 친구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였다.

스테파니아 포스티글리오네

**내**가 교회에 들어올 때까지 로베르타와 나는 무엇이든 항상 나누는 친구였다. 우리는 이탈리아에 있는 고향에서 선교사를 만나 몇 차례의 토론을 나누었다. 그러나 나의 간증은 매일 자라나는 반면 로베르타는 점점 흥미를 잃어갔다. 친구가 나와 함께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침례 받는 일로 고심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성경을 뒤적이다가 우연히 마태복음 10장을 읽게 되었는데 34~38절이 마음에 와 닿았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짐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영은 친구와 친척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침례를 받았다.

로베르타와의 우정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전처럼 가깝지도 않았다. 로베르타는 복음에 그토록 열의를 갖고 있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나는 나대로 세상적인 것에 그렇게 열망을 갖고 있는 친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세상적인 것들은 더 이상 내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사이를 갈라놓는 “짐”이 우리 사이에 찾아왔던 것이다. 나는 이 때문에



고통을 겪었지만, 또한 친구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복음처럼 단순하고 아름다운 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 것처럼 명백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녀의 마음은 분명 강박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나의 태도를 눈치 챈 로베르타는 점점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강박한 마음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싫어했다. 내가 종교에 대해 말을 꺼낼 때마다 그녀는 주제를 바꾸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논쟁 대상이 되었다.

2년이 흘렀다. 어느 날 나는 로베르타에게 나와 함께 포지아 시로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 곳에서 나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로베르타는 가겠다고 했다. 로베르타가 가기로 한 주된 이유는 한동안 여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로베르타가 다른 방에서 기다리는 동안 빈센초 콘포르테 축복사님은 내게 훌륭한 축복을 주셨다. 축복을 받고 나서 나는 영에 감동된 나머지 로베르타가 있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 버렸다. 그녀는 나를 기다리면서 분명 커다란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콘포르테 축복사님은 그녀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그녀가 교회 회원이 아니라는 것을 안 그 분은 겸손하게 그녀의 의자 곁에 무릎을 꿇으셨다. 그리고는 내 친구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강한 간증을 하셨다. 그 분은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 계시고 그녀를 사랑하시며 단순한 기도를 통해 주님을 알 수 있다고 간증하셨던 것이다.

그 간증은 로베르타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런 단순한 행동으로 축복사님은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되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나는 감미롭고 사랑스러운 영의 음성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할 경우,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 완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요셉 스미스를 택해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셨다. 우리가 간증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이러한 경험을 한 이후로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이제 로베르타도 복음을 공부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구세주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 간증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스테파니아 포스티글리오네는 이탈리아 나폴리 지방부 플레그레오 지부의 회원이다.



# 상호 향상 모임을 잘 활용함

**다** 음 상호 향상 모임 활동을 계획할 시간인가? 상호 향상 모임의 목적을 알 경우 여러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다음은 재미있는 활동을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다.



### 미래를 위해 준비함

- 여러분이 장차 가족을 갖게 될 경우와 선교사로 봉사할 경우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요리 기술을 배운다. 와드나 지부에 있는 몇몇 훌륭한 요리사들의 도움을 얻고, 여러분이 만든 맛있는 음식을 시식하게 한다.
- 해의 왕국의 결혼에 관한 공과를 한 후, 일지예다 미래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보낼 편지를 쓴다. 장차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소망하는 모든 사항들을 적어 본다.

### 봉사

- 집안 허드렛일의 목록을 준비한 다음 밖에 나가서 그러한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사전에 그러한 필요 사항이 있는 가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봉사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복음 원리를 실천함

- 두 명씩 짝을 짓고 서로의 모습을 그려 본다.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전시한 후에 여러분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인상을 지니는 방법에 대한 공과를 한다.(앨마서 5:14~19 참조)

- “디저트 공과”를 한다. 더 배우고 싶은 복음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각자 발표하게 한다. 모든 사람이 사전에 그 주제를 알고 있도록 하여 디저트를 먹는 동안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눔으로써 영적인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한다.

### 단합을 이룸

- 와드나 지부 청소년들에 대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에 대해 좀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각자에 대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게임을 한다.

아니면 간증 모임을 갖고 좋아하는 찬송가나 성구를 나눈 다음 그것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를 말한다.

- 모든 사람에게는 관심사가 있다. 정원회 회원이나 반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 공과나 워크숍을 하게 한다. 그들의 관심사를 복음과 연관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 개인 발전 프로그램과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완수함

- 위에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은 정원회와 반원들이 개인 발전 프로그램과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완수하도록 해 준다.

### 영을 느낌

-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 위에 있는 각 아이디어들은 영을 불러올 수 있다. 주어진 모든 경우에 성신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

##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함

**기** 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도 그와 같이 하도록 권유한다.

###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희 회장 대리:** “계시의 흐름은 여러분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으로 복음 원리를 시험하는 동안 영이 여러분을 가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의 신앙은 점차 지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끊임없이 세워질 것이고, 진리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고, 구속주와 부활과 회복에 대한 간증은 마치 ‘생명수가 솟아나오는 샘’과 같을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일상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결정을 하는 데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개인을 위한 계시: 은사와 시험과 약속”,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60쪽)

**앨마서 17:2~3:** “이들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히 경전을 연구한 사람들인지라 ... 그뿐 아니라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우리 모두 합당하게 성찬을 취함으로써 ‘흡족할’ (니파이삼서 20:8; 18:9 참조) 것이라는 구세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흡족’하다는 것은

‘영으로 충만하여 진’ (니파이삼서 20:9)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영, 즉 성신은 우리의 보혜사요, 지시자요, 전달자요, 통역자요, 증인이요, 정화시키는 자, 곧 전혀 흠이 없으신 안내자이며 성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두는 현세에서 우리가 영생을 향해 여행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61쪽)

###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겸손은 ... 개인적인 성장이라는 씨앗을 싹트게 합니다. 신앙을 통해 이를 발전시키고 회개에 의해 순화되고 순종과 선행으로써 강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씨앗은 영성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앨마서 26:22 참조) 그 때에 비로소 거룩한 영감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감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고, 권세와 그와 같은 영감 받은 뜻을 성취하게 하는 능력입니다.”(“행복과 승영을 위한 계획”, 성도의 빛, 1982년 4월호, 16쪽)

###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1보좌:** “학생들에게 삶에 들려오는 영의 속삭임이나 지시를 일지에 적어 보라고 하신 한 선생님께서 감사드립니다. 그 분은 우리에게 느낀 것과 그 결과를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들이 분명해졌습니다.”(“기적의 하나님”, 리야호나, 2001년 7월호, 12쪽)

### 앤 시 핑그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때때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안정된 상태나 장소로 나오라고 요청 받을 때에도 불안해 하는 시기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영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요, 스승이요,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니파이서서 32장 5절에 있는 ‘성신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모두를 너희에게 보여 주시리니’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성신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두려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하게 하는가? ■



채드 모리스

인생이 공평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님은  
변화를 가져다주실 것이다.

**형** 이 밤 늦게까지 있거나 나보다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먹을 때면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 그러면 인생의 다른 많은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늘 다음과 같은 대답이 들려온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중학교에 다닐 때 나는 인생이 공평치 않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키가 작았다. 그것도 평균에서 약간 작은 것이 아니라 작아도 너무 작았다. 하루는 같은 학년 전체가 사진을 찍기 위해 키 순서대로 섰는데 나는 작은 쪽 맨 끝에 있었다.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나는 농구를 좋아해서 학교 농구팀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학생들이 각각의 포지션에 기용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할 때, 나는 몇 시간 동안의 연습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코치들은 체육관 가운데 서서 우리들을 관찰하면서 그 내용을 메모했다. 나는 그들이 내 키를 보고 나를 주시해 주기를 기도했다.

몸을 풀 후에 감독이 호루라기를 불고 먼저 슈팅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게 공을 주었다. 몇 명 지나지 않아 차례가 된 나는 코트 중간에서부터 드리블을 한 다음 3점 슛 라인 지점에서 점프 슛을 해야 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드리블을 할 때마다 손이 떨렸다. 자유투

**불공평의 벽을 넘어서**





“육체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왜’ 라는 말은 때때로 진정한 질문이 아니라, 원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의 ‘왜’ 라는 질문은 현재는 그 시련이 어려워 보이거나 니중에는 관찮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강박 관념으로 인한 ‘왜냐?’ 라는 질문보다는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훨씬 낫습니다. 혹은, 모로나이의 말씀을 ‘내가 겸손하였다라면 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었으리라’고 바꾸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이더서 12:27 참조)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미치사”,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22~23쪽.



지점에서 멈춘 나는 점프를 한 뒤 공을 던졌다. 나는 공이 적어도 링이라도 맞추길 바라는 심정이었다. 다행히 공은 링 주위를 돌더니 그물 안으로 떨어졌다.

예상보다 빨리 다시 던질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에도 공은 링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내가 던질 차례가 되었을 때도 행운은 계속되었다. 전년도 팀에서 센터로 뛴 선수가 유심히 관찰하고는 탈락하지 않도록 도와 주기로 했다. 내가 공을 던지기 직전에 그는 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시작했다.

그 날 일과를 마치고 1차 합격자들의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내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 나는 넘어야 할 높은 산에서 이제야 첫 발을 내딛은 것이었다.

며칠 동안의 엄청난 긴장과 이른 아침의 시험

끝에 2차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나는 두 번째 고개도 넘어설 수 있었다. 한두 번의 시험이 더 남은 상태에서 확률은 더 높아지고 있었지만 경쟁 상대들 또한 만만치 않았다.

선발 시험은 주말이 되어서야 끝났다. 나는 선발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코치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침착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내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

나의 과학 선생님이기도 한 부코치가 나를 옆으로 끌어당겼다. “넌 키는 작지만 아주 잘

했어. 가능성이 많아.” 그렇지만 그의 칭찬도 실망에 찬 내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선수를 탈락시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지금으로서는 팀에서 경기를 하기에는 네 키가 너무 작아. 내년쯤 다시 보자.”

왜 나란 말인가? 내 꿈 하나가 무산되었다. 그것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요인 때문이었다. 인생이 공평해 보이지 않았다.

왜 나란 말인가?

물론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최근에서야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암몬의 성공이 그의 형제인 아론에게 얼마나 불공평하게 느껴졌을까 하는 것이다. 그들은 똑같이 레이맨인들을 가르치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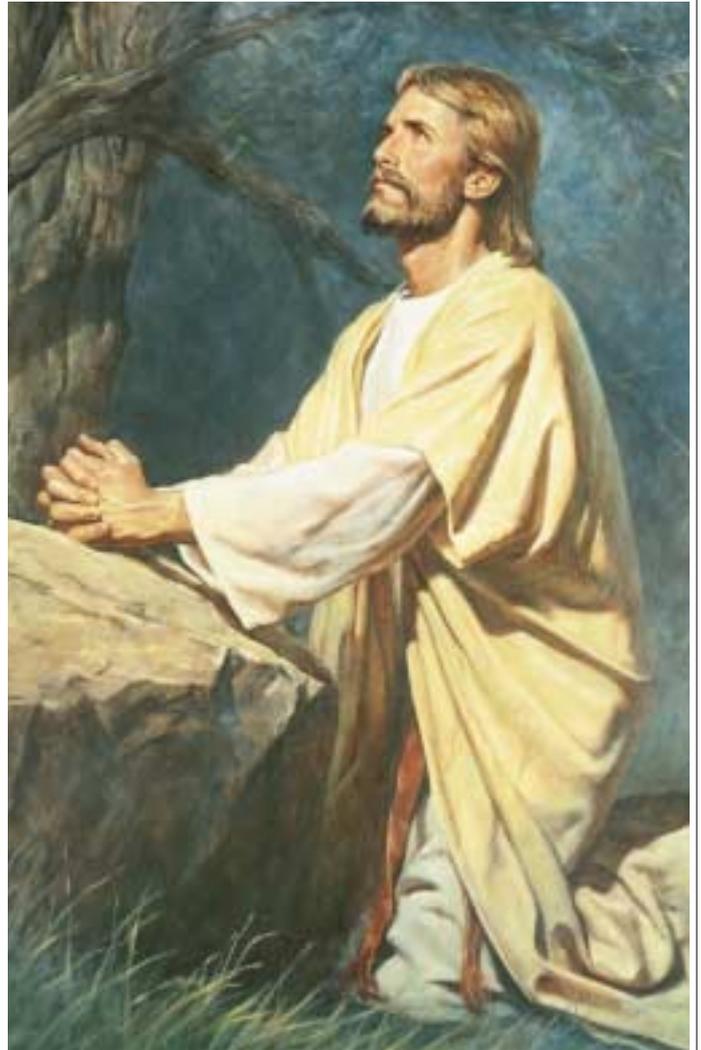
갔다. 하지만 암몬이 왕의 양 떼를 지키면서 영에 인도되어 라모나이 왕과 그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는 동안 아론과 그의 동반자들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다. 레이맨인들이 “이들을 쫓아내어 매질하였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곳에서 저 곳으로 몰아내어 결국은 믿도나이 땅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곳에서 잡혀 감옥에 갇힌 후 단단한 밧줄에 묶여 여러 날을”(앨마서 20:30) 지냈던 것이다.

아론이 “왜 나란 말인가?” 하고 물을 수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보라. 아론이 실패만 하고 감옥의 벽만 바라보는 동안 암몬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사실상 아론이 구출된 것도 암몬이 거둔 성공의 일부였다. 아론의 인생은 공평하지 않았다.

불공평함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아무런 분노의 표시를 나타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감옥에서 구출된 즉시 주님께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면서 다시 선교사로서 봉사했다. 그러자 주님은 그를 축복하셨다. 아론은 모든 레이맨인과 그 가족을 다스리는 왕인 라모나이의 부친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게 되었다.

나 자신의 상황도 조금은 아론과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반면, 나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나는 선택할 수 있었다. “왜 나란 말인가?”라고 물으며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론처럼, 인내심을 갖고 주님을 의지할 수도 있었다.

이로 인해 나는 때때로 내 인생이 공평치 않더라도 내 염려를 구세주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속죄는 단지 우리가 죄와 실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결정이 아닌 여건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불공평한 결과들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부조리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54쪽)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 때 내 인생이 갑자기 공평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불공평한 상황에서도 그분과 같이 되려고 노력할 때, 그분은 내가 비통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히려 불공평한 세상을 사랑하도록 도와 주신다. ■

채드 모리스는 유타 웨스트 조던 이스트 스테이크 웨스트 조던 제44와드의 회원이다.

**암** *몬의 삶과 비교할 때 아론의 삶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난 후 아론은 분노하는 마음 없이 또다시 레이맨인들을 가르쳤다.*

# 파블로 할아버지를 찾아서

라켈 페드라사 데 브로시오

나의 가족 역사 탐구는 늘 하나의 특정한 이름에서 중단되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연히 예상치 않은 곳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을 때,  
파블로 할아버지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었다.

**아** 버지는 아르헨티나 북동 지역에 있는 차코에서 출생하셨다. 그 곳은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곳으로 사람들은 밭에서 목화나 다른 작물을 재배했다. 이웃들은 대를 이어 서로 알고 지냈으며 전통은 정확하게 이어졌다. 아버지의 가족은 비야 앙헬라에서 안락한 중류층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아홉 살이 되었을 때 부모가 별거를 하게 되어 아버지는 어머니와 누이들과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서 살았다. 이것은 고향과 친구들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부친을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르는 어린 소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변화였다. 별거가 길어지면서 고향과 부친에 대한 아버지의 기억은 희미해졌다. 그에게는 부친의 사진조차 없었다.

우리 가족은 회복된 복음을 알게 되었으며 결국은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나는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가족 역사 사업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조상을 찾는 일에 열정을 쏟았으며, 외가쪽은 상당히 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쪽은 파블로 페드라사 할아버지라는 한 이름에서 번번이 중단되고 말았다.

아버지가 자신의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나는 파블로 할아버지에 대해 좀더 찾아 보아야겠다는 강한 소망이 생겼다. 우리는 가족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그 할아버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가족 기도를 드렸다. 아버지는 기억을 더듬어 큰 고모의 주소를 기억해 내셨다. 아버지는 고모에게 편지를 썼으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료를 얻기도 전에

그 분은 세상을 떠나셨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드렸다.

하루는 아버지가 출근을 하시는 길에 타고 가던 버스가 신호에 걸려 우편물 트럭 옆에 정차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트럭에 실려 있는 여러 개의 커다란 소포 꾸러미들을 보고 계셨는데 그 중 하나가 시선을 끌었다. 거기에는 파블로 페드라사라는 이름과 어렸을 적 아버지 고향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몹시 흥분한 아버지는 주소를 적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자동차 기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트럭에 실려 있는 그 큰 상자가 할아버지에게 가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이 주소로 편지를 보내면서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그러나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와드에 있는 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자 그 친구는 이렇게 제언했다. “직접 가서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찼다. 파블로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싶어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주소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러나 기도하고 났을 때 우리는 차코로 가서 파블로 할아버지를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온 가족이 승합차를 타고 28시간 동안 여행을 했다. 그 소포에 있던 주소를 향해 차를 운전해 가다가 우리는 드디어 아름답게 잘 단장된 집 앞에 차를 세웠다. 60세쯤 되어 보이는 분이 밖에서 세차를 하고 계셨다. 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차에서 내리신 뒤 자신을 소개하고 우리가



제대로 왔는지를 확인하였다.

우리는 기대에 차서 차창을 통해 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아버지가 그 분과 포옹을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런 후에 두 분은 우리에게 차에서 내려오라고 손짓을 하셨다. 그 분이 바로 아버지가 4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파블로 할아버지였다.

그렇게 만난 것이 어색하기는 했지만 그 곳에는 사랑의 영이 있었다. 우리는 그 작은 마을의 적절치 못한 우체국 서비스 때문에 우리가 몇 년 동안 보낸 편지를 그 분이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또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부인과 자녀들도 만났으며, 그들이 느낀 기쁨과 슬픔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파블로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훌륭한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랑이 많은 남편과 아버지였으며 훌륭한 이웃이었다. 우리가 마침내 그 분을 찾아냈을 때 흥분했던 것 만큼이나 그 분도 우리에게 대해 몹시 알고 싶어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제 파블로 할아버지의 사진들을 갖고 있으며 그 분과 몇몇 조상들에 관한 중요한 자료들도 갖고 있다. 그 분은 일 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우리는 그 분과 다른 가족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아버지는 부모에게 인봉될 수 있다는 기쁨에 가득 차 계시다. 파블로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의 가족 역사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우리 가족은 많은 축복을 받아 주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말라기 4:6)는 약속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

*라켈 페드라사 데 브로시오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벨그라노 스테이크 차카리타 와드의 회원이다.*



# 품꾼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왕국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각자의 동기를 살펴보라고 권유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시간당 보수를 받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더 열심히 오랫동안 일하면 더 많은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효율적인 경영은 다릅니다.

## 헨리 에프 아세베도 장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제가 1975년에 교회에 개종했을 때, 필리핀에는 회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교회가 급성장하여 이제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많은 직책에 부름을 받아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영예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봉사를 하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충실하기는 했지만 몇 년 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난 새로운 개종자보다 제가 하늘에서 더 큰 보상을 받게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다른 많은 질문과 마찬가지로 비유로 답해 주셨습니다.

###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어느 날 구세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마태복음 19:16)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마태복음 19:21) 이 대답에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마태복음 19:25)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는 영생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19:26)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사도를 대신하여 물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마태복음 19:27)

예수님의 대답은 영광스러운 약속인 반면 엄한 꾸짖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먼저 십이사도인 그들에게 부활 후에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마태복음 19:30) 그리고 품꾼의 비유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 모든 품꾼은 한 데나리온을 받음

예수님은 천국을 품꾼들을 고용하러 이른 아침엔 나간 집주인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종종 고용해 갈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어떤 공공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 집주인은 품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또 제 삼시(오전 9시)에 주인이 다시 장터에 나가 보니 일을 기다리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도 고용했으나 이번에는 그들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당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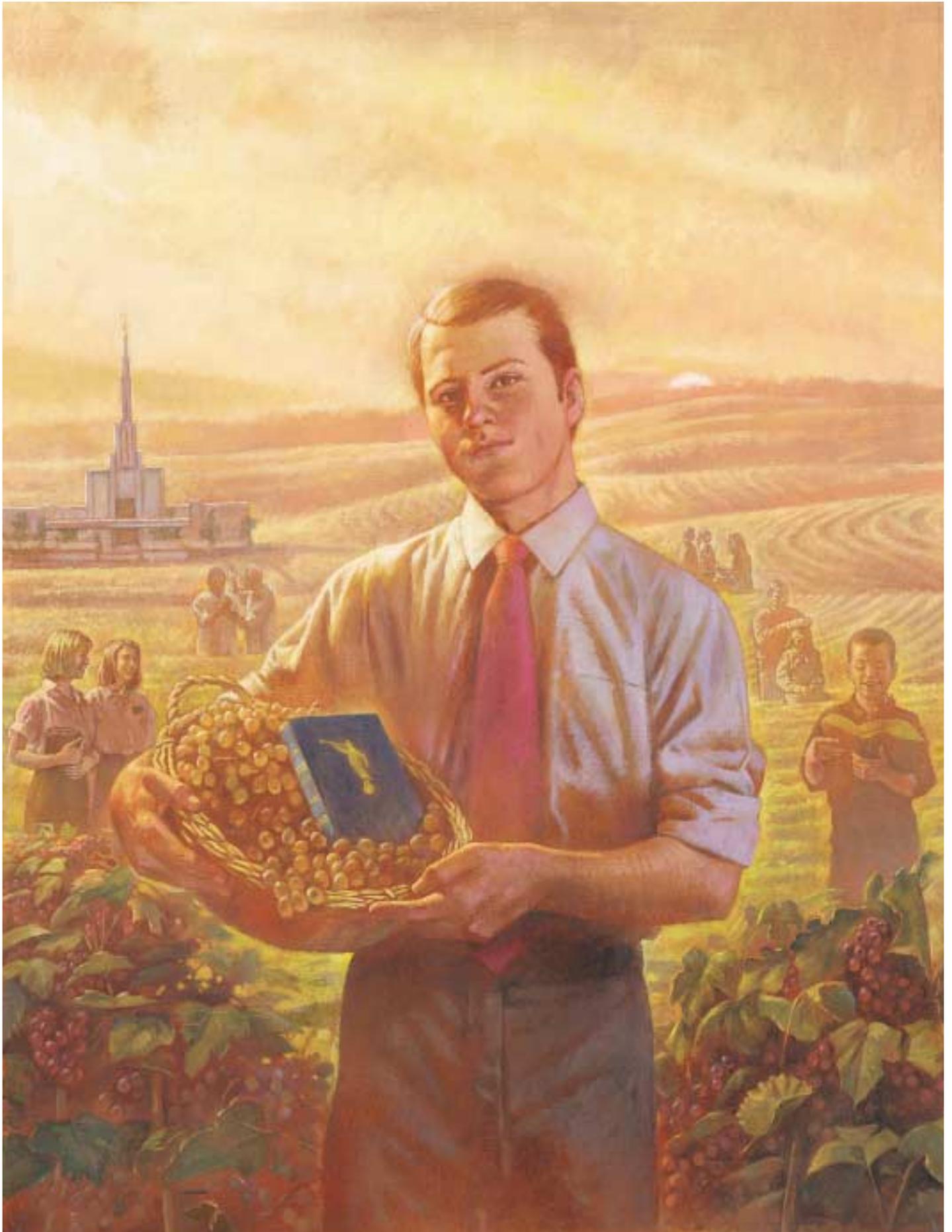




그림: 존 스타트, '최후의 심판의 순간' (1850년)

## 해 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약속은 언제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든 상관없이  
“권능과 힘과 지배력[이]  
동등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주리라”(마태복음 20:4)고 약속했습니다. 그  
품꾼들은 기꺼이 동의하고 포도원에 먼저 온  
일꾼들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육사와  
구시(정오와 오후 3시)에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그가 또 제 십일시(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 마지막으로 새로운 품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들에게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인은 모든 품꾼들을 불러, 먼저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시간만 일한 품꾼이 하루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주인은 차례로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에서 일한 시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이 몇 시간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불된 품삯을 보고는  
약속된 테나리온뿐 아니라 보너스까지 기대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한 테나리온만을 주자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마태복음 20:12)

주인은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마태복음 20:13)라고 말하고는 그들에게  
약속된 품삯이 주어졌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마태복음 20:15)

분명 주인은 그의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자비로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마태복음  
20:16; 교리와 성약 121:34~40 참조)

### 교만을 주의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시간당 보수를 받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더 열심히 오랫동안  
일하면 더 많은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효율적인 경영은 다릅니다. 침례를  
받고, 신권에 성임되고, 거룩한 성전 의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름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우리가  
충실할 경우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교리와  
성약 84:38), 또는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을  
약속하십니다.(교리와 성약 84:33~41 참조)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품삯이나 보상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4:7 참조)

우리의 느낌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었던 초기 사도들의 경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부름 받아 오래 일했기 때문에 더 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먼저 고용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득권 같은 것은 복음 안에 없습니다. 일하는 동안 그분이 주실 보상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상당한” 것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1899~1994)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만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경쟁심에서 나옵니다. …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월급으로 자신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보다는 월급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낮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만으로 인한 적대감입니다.”<sup>1</sup>

### 불평을 조심하십시오

제가 대학에서 학군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교관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곤 했습니다. “불평하기 전에 먼저 복종하라.” 저는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제 자신에게 이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종을 주제로 말씀해 달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철학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품삯에 대해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일터로 가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누가 명예를 얻을 것인가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에 대해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집 주인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는 대관장단에서 지역 지도자에 이르는 그분의 종들에게 결코 불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 보상은 같음

오래된 회원과 새로운 회원이 위대한 말일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 나란히 일할 때 커다란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받는 보상이나 그들의 성취에 대해 질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며 일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일꾼들을 위한 궁극적인 보상이나 영광을 주님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25년 이상을 봉사해 온 저는 충실하기는 했지만 몇 년 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난 새로운 개종자보다 천국에서 더 큰 보상을 받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약속은, 언제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든 상관없이 “권능과 힘과 지배력[이] 동등하게”(교리와 성약 76:95) 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품삯을 후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분명 “상당한” 품삯을 지불하실 것입니다. ■

주

1.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4~6쪽  
헨리 에프 아세베도 장로는 필리핀 지역에서 봉사하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이다.

### 이야기에 봅시다.

1. 가족에게 주님을 위해 일할 때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보상 목록을 만들어 보게 한다. “모든 품꾼은 한 데나리온을 받음” 부분을 읽고,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이 것처럼 기분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본다. 주님은 품삯을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간증한다.
2.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집안의 허드렛일과 같은 단순하지만 쓸모있는 일을 하도록 부탁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더 힘든 일을 부탁한다. 그들이 한 일에 대해 같은 금액의 보상을 제의한다. 이 제의가 왜 불공평해 보이는지 토론한다. 본 기사의 마지막 세 부분을 읽는다. 교만과 불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아세베도 장로가 제시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초기  
사도들의  
말씀

# 교회를 세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린도전서 3:9)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 이 교회가 신성한 인도를 받고 있고, 신권 지도자들은 부름에 관해 영감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그들의 성역 기간 내내, 복음을 선포하고, 지부를 조직하며, 성도들에게 교회에 관련된 책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1. 교회의 조직과 구조는 권위있는 대표자들을 통해 신성한 계획에 따라 확립되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은 그분의 예언자들을 통해 참된 교리와 원리들을 계시하십니다.
3. 모든 회원들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 원리들은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 1. 교회의 조직과 구조는 권위있는 대표자들을 통해 신성한 계획에 따라 확립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신권의 열쇠와 계시를 통해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과정에서 다른 대안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신권의 권능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히브리서 5:4) 신권의 권세는 영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요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인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사도행전 8:18~19)

베드로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사도행전 8:20~21)

아무도 신권의 권세를 돈 주고 사거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권능 있는 자들에 의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의 특정한 부름들도 성신의 영향력 아래 신권 열쇠를 행사하는 권능 있는 자들을 통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원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개인적인 성향이나 지역적 관습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인수하지”(디모데전서 5:22)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울은 부름을 주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숙고하며 영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 이 교회가 신성한 인도를 받고 있고, 신권 지도자들은 부름에 관해 영감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의 한 경험은 1997년, 제가 새로운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았을 때였습니다. 제 첫번째 임무 중 하나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이 스테이크를 재조직하는 일을 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매우 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험 부족으로 다소 염려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신권의 열쇠와 계시를 통해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재조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스테이크에 있는 많은 신권 소유자들을 접견했습니다. 이 형제들 중 몇 명은 스테이크장의 책임을 성공적으로 인수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 중 누구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상당한 토론과 숙고 끝에, 헤일즈 장로님과 저는 한 특정한 후보자를 택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헤일즈 장로님은 제게 기도를 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영적인 경험 중의 하나였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저는 영의 확인을 간구했습니다. 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입 밖으로 냈을 때, 성신은 그가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도 강력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기도를 마칠 수 있을 정도로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계시에 의해 헤일즈 장로님과 저 둘 다, 그가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영감에 의해 인도되는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 2. 하나님은 그분의 예언자들을 통해 참된 교리와 원리들을 계시하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 있는 기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에베소서 2:19~20)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 을 기억하”라고 간곡히 권유하며,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베드로후서 3:2~3)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서 고개를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과 뜻을 계시하여 우리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에베소서 4:14) 않게 해 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합당함을 유지하고 계시된 이 교리들을 순수하게 보호한다면, 커다란 축복이 올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디모데전서 4:16)

1998년 4월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을

마치시면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32개의 새로운 성전 건축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성신은 제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살아 계신 예언자이며, 그 성전들이 건축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성신에게서 오는 이와 똑같은 확신이 199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힝클리 대관장님이 일리노이 주 나부 성전의 건축을 발표하셨을 때에도 제게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항상 그분의 뜻과 신권의 권세 및 권능을 계시해 오셨습니다.(아모스 3:7 참조)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십니다.

## 3. 모든 회원들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성공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러이니 ...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12, 14, 21, 27, 28)

교회의 각 회원은 특별한 은사나 재능을 축복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능을 갖고 있다면 감독이나 지부장이 와드나 지부를 성공적으로 구성하기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한 청소년 지도자는 합창단 지휘자와는 다른 재능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와드나 지부의 전체적인 복리를 위해서는 둘 다 중요합니다. 몸의 각 부분이 몸 전체의 건강과 힘에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각 회원은 와드나 지부의 건강과 힘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회원들이 시간이나 재능을 교회에 기꺼이 헌신할 때, 그들의 간증은 자라나고 영적인 삶은 강화됩니다. 저는 여러 지역의 교회에서 회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돕는 일에 완전히 헌신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카를로스과 로사리오 카사리예고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카를로스과 로사리오를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우루과이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십대였던 그들은



여러 경륜의 시대에 있었던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주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그 원리에 따라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카를로스는 1970년 12월에 침례를 받았으며, 석 달 후에 로사리오 가족의 침례식에서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로사리오를 만났습니다. 그 침례식 후에, 카를로스과 로사리오는 둘 다 청소년을 위해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곧 자신들이 속한 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이 우루과이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초기 학생들 속에 있었습니다. 로사리오는 또한 스테이크 초등학교 회장단에서 봉사를 했고, 카를로스도 매주 방영되는 교회 텔레비전 프로그램 *Nuestro Mundo*(우리 세상에) 출연했습니다.

1975년 즈음, 카를로스과 로사리오는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역 대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그들의 인생 행로가 바뀌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스폰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1895~1985)은 합당한 모든 청년들은 전임 선교 사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또 청년들은 그 목표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카를로스과 로사리오는 예언자의 권고에 따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 해 말, 카를로스는 우루과이의 파라과이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사리오는 6개월 후에 아르헨티나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를로스과 로사리오의 헌신적인 봉사로 많은 선한 사람들과 미래의 지도자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1981년 7월 결혼한 이래, 카를로스과 로사리오는 네 자녀를 두었고, 교회의 수많은 직책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고국인 우루과이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돕기 위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그들이 봉사한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에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여러 세대가 속한 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도움을 주며 온전히 헌신한 선한 사람들의 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와 유사하게, 베드로는 “너희[는]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집]”(베드로전서 2:5)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우리 각자가 맡은 부분을 해내기 위해 개인적으로 결심합시다. 현대의 위대한 예언자 브리감 영(1801~1877)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을 만들 결심을 할 때 우리는 시온을 만들 것이며, 이 사업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sup>1</sup> ■

주

1.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113쪽

**모** 든 교회  
회원들은  
와드나 지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교회에  
헌신할 때, 그들의 간증은  
자라납니다.

## 아버지가 받은 용기의 훈장

엠마누엘 플렉킨저

**제** 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우울한 시절, 아버지는 독일 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셨다.

아버지는 알자스 지방(한때 독일의 일부였음)에서 잡힌 프랑스 포로들 속에 있었다. 그들에게는 생필품을 포함하여 모든 물자가 부족했다. 한 수용소에서 다른 수용소로 오랜 행군을 하는 동안 많은 포로들이, 특히 아픈 사람들이 굶주림이나 모진 날씨를 견디지 못해, 혹은 단순한 탈진으로 사망했다.

그렇게 독일을 향해 길고 힘든 행군을 하던 어느 날, 이 불쌍한 포로들의 행렬 근처에 있던 한 집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났다. 그들은 집안에 갇힌 사람들의 공포에 찬 비명을 들을 수 있었다. 보초는 포로들의 탈출을 막고 그들을 더 잘 감시하기 위해 포로들을 재빨리 밀착시켰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직 양심의 소리에만 귀 기울인 채 대열에서 뛰어나와 있는 힘을 다해 달려 가셨다.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겨를도 없이 급히 뛰어가는 아버지를 쫓아가며 보초는 총을 쏘아 댔다.

기적적으로, 아버지는 총에 맞지

않으셨다. 보초들은 아버지가 불길에 휩싸인 집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놀라서 총격을 멈추었다. 조금 후 아버지는 여덟 살 정도 된 어린 아이를 안고 나타나셨다. 아버지는 도와 달라고 외치는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구하려 가셨던 것이다. 어리둥절해 있는 독일 병사들에게 아버지는 아이를 넘겨 주었다. 그 순간 한 장교가 아버지에게 매우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줄 알고 있소? 당신은 방금 미래의 적군 한 명을 구한 것이요.”

아버지는 아이를 구하느라 지치고, 몇 달간 계속된 많은 역경들로 인해

기진맥진했으나 놀라운 확신을 갖고 이렇게 대답했다. “내게는 어떤 적도 보이지 않소. 나는 한 인간을, 내 도움이 필요한 한 어린 아이를 보았을 뿐이요. 나는 해야 할 일을 했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 해도 난 주저 없이 또 그렇게 할 것이요.”

아버지는 다시 포로들 속으로 인도되셨다. 그러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보** 초들은 아버지가 불길에 휩싸인 집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놀라서 총격을 멈추었다. 조금 후 아버지는 여덟 살 정도 된 어린 아이를 안고 나타나셨다.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의 이 영웅적인 행동이 있는 후로, 모든 포로들은 전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 가장 놀랄 만한 일은 그 무리가 수용소에 도착한 후에 일어났다. 아버지는 프랑스 군복을 입고서 독일이 주는 명예 훈장을 받으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5:12)는 구세주의 계명을 이해하셨다. 아버지는 회복된 복음에 대해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1959년에 돌아가셨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지금 계신 곳에서 그 기회를 얻고, 복음이 가져다 주는 모든 가르침과 축복을 받게 되실 것이라고 믿는다. ■

엠마누엘 플렉킨저는 프랑스 낸시 스테이크 콜마르 지부의 회원이다.

## 딸의 기도

카리 앤 라스무센

**일**년 동안의 경제적인 시련을 겪은 후, 이제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던 내게 또다른 시련이 닥쳐왔다. 그 동안, 나는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 시련도 좋은 경험으로 여길 날이 오리라 생각하며 주님을 믿어 왔다. 그러나 또다시 새로운 시련에 부딪히며, 나의 영적인 생활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버림당하고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자, 나는 곧 내 영을 먹이는 일을 그만두었다. 교회에만 계속 나갈 뿐, 기도와 금식, 경전 읽기도 그만두었다. 더 이상 성전에도 가지 않았다. 그저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부름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일들만 할 뿐이었다. 절망적인 느낌이 들었으며, 해를 입지 않게 보호 받는 것도 아닌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어느 날 밤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열살 된 딸아이가 몰몬경을 들고 들어왔다. 그 아이는 몰몬경을 읽던 중이었는데, 어떤 한 단어를 발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딸아이를 도와 준 뒤, 방에서 내보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자신이 읽은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던 나는 경전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기분이 전혀 아니었다. 성가신 음성으로 내가 말했다. “사만다,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내가 읽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드리렴.”

딸아이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 아이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엄마와 함께 경전을 읽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놀라서 딸을 쳐다보았다.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 위 옆 자리를 두드렸다. 딸이 침대 위로 올라왔다. 우리는 몰몬경 한 장을 함께 읽었다. 그러나 읽는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다. 시련을 겪는 동안 그분께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딸을 통해 일깨워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이다.

그 날 밤 이후로 나는 다시 매일 개인 기도를 하고 시간을 내어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성전에

가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놀랍게도, 경전과 교회 잡지에서 읽는 모든 것이 나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적용되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나의 영혼에 양식이 주어지고 있었으며, 내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연히 그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주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열 살 된 내 딸과, 나를 부드럽게 일깨워 주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언제나 감사할 것이다. ■

카리 앤 라스무센은 유타 머레이 웨스트 스테이크 머레이 제10와드의 회원이다.

## 용서를 통해 평화를 찾음

의명

**시**동생인 존은 우리 주를 떠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존과 그의 아내 애니를 비롯한 그들의 가족이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웠다.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였다.

존의 가족이 떠난 지 몇 달 후, 남편 론은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새로운 지역에 잘 적응해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했다.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갖고 있었는데, 언제라도 괜찮으니 원한다면 다시 돌아와 함께 일하자고 동생에게 말했다. 그 말을 할 때 존의 아내 애니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분명하게 잘라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론과



**나**는 결혼 피로연에서 애니를 피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피로연이 거의 끝날 무렵, 나는 애니와 단 둘이 앉아 있게 되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론의 사업에 관해 뭔가 좋지 않은 소리를 한 듯했다.

론은 내게 그 대화 내용을 말해 주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으나 나는 그가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애니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번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 다른 나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밀려들었다. 나는 애니의 흠을 잡기 시작했으며 다른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애니에 대한 흠을 보았다.

본질적으로, 나는 교만이 마음속에 스며들어와 뿌리내리게 내버려두었고, 그러는 동안 자비심은 시들어 사라졌다.

전염병이 퍼지면 육체에 질병과 고통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만도 영혼에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편은 그 일을 이미 잊어버렸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감염된 채였다. 내 생각은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가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가족에게 쉽게 화를 냈으며, 모든 상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도 없었다.

몇 달이 지난 후, 우리는 존과 애니가 어떤 가족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결국 나는 그녀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보는 것이 두려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근심은 점점 더

커졌다. 내가 느끼고 있는 방식이 싫었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자주 기도를 드렸다. 마침내 애니에 대한 좋은 생각이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

결혼식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우리는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었다. 저녁 내내 애니를 피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러면서도 계속 그녀를 지켜보았다. 애니를 지켜보면서 내가 그녀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했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내 마음은 용서가 주는 평화를 갈망하기 시작했으며, 애니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다.

저녁 피로연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애니와 단 둘이 앉아 있게 되었다. 처음 인사를 나눈 뒤로 그 때까지 우리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나는 손을 뻗었고,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눈물을 머금고 내가 말했다. “애니,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으며 용서를 통해 오는 평화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지, 혹은 이전의 감정들에 대해 설명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가 느낀 사랑과 용서하고자 하는 소망이었다. 그 때서야 나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교만은 무겁고 불필요한 짐이다. 하지만 구세주의 온전한 사랑을 느끼는 일은 마음을 겸허하게 하는 달콤한 기쁨이었다. ■

가병 사용

## 짙은 안개 속의 나침반

린 총 팀

**몇**년 전에 나는 대만 해군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나는 항만 지원 부대 상사와 분대장으로 복무하며,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배들을 지원했다.

초봄의 어느 날 아침, 동료와 나는 입항하는 배를 지원하라는 일상적인 지시를 받았다. 처음엔 날씨가 맑았다. 그러나 항구를 떠난 후 우리는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가시거리는 3미터도 채 안 되었다. 봄에 그런 짙은 안개가 끼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는 매우

**항**구를 떠난 후 우리는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가시거리는 3미터도 채 안 되었고, 우리는 곧 길을 잃었다.

긴장하여 방향 감각까지 상실했다. 우리는 곧 길을 잃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그 배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그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으므로, 선장은 내게 배의 나침반을 이용해 위치를 파악하고 모든 사람들을 항구 어귀로 인도하여, 임무 수행을 유보하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중국 본토에 접근하게 될 수도 있었다.

나는 나침반이 필요할 만큼 짙은 안개를 마주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야 할 나침반 점검과 보수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방향을 찾기 위해 나침반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것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선장이 질책하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소.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암초에 부딪힐지 모르오!”

그의 말은 옳았다. 나는 애똥한 심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태만을 용서해 주시고 안개에서 빠져 나갈 길을 찾아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기도가 끝난 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머리 속에 떠올랐다. 나는 선장에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돌아서, 매우 천천히 항해하며 해안을 찾아보라고 건의했다. 그는 동의했고, 이런 조치를 취한 지 오래지 않아 우리는 항구 어귀 남쪽의 화강암 절벽에 도착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절벽을 따라 항구로 들어왔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무사히 귀항했다.

이 경험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적절한 대비책을 소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나침반이 작동하기 시작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자주 자문해 본다. 안개에 대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최근에 영적인 나침반을 점검해 보았는가? 나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신앙에 충실한가? 나는 깨닫는가? 이것들은 우리 모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안개에 휩싸일 때 우리는 죄의 암초에 부딪혀서 영영 집으로 오는 길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영적인 리아호나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 우리가 부지런하고 충실하다면 성신에 의지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 항구까지 항해해 가서 무사히 하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

린 총 팀은 대만 타이쑹 스테이크 타이쑹 제4와드의 회원이다.



# 지극히 작은 자에게

빅토르 길레르모 차우카 리베라



이웃을 돌보고 그들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참된  
기쁨을 느낀다.

**그** 날은 토요일이었고, 내 법률 사무실에는  
처리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스테이크장이었던 나는 우리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함께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로 약속돼 있었다. 자매들은 페루 리마에  
있는 세르히오 베르날레스 데 콜리케 코마스  
병원에 가서 아픈 아이들과 임산부들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영적인 힘을 나누어 주고 한 해  
동안 만든 누비이불과 장난감도 전달할  
예정이었다.

해야 할 다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병원을  
향해 떠났을 때, 그 날 생각했던 많은 경전 구절  
중의 첫번째 말씀이 떠올랐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태복음 25:39~40)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가슴 속에  
밀려들었다. 이것이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영은 또한 다른 사람들, 특히 아프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주님께서 나를 스테이크장으로 부르신 것이라고  
속삭여 주었다. 그 날 내내 구세주와 그분의  
자비로운 성역에 관한 생각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페루 리마 코마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지역 병원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 차우카  
스테이크장과 동행했다.



않았다. 우리의 작은 방법으로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일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제껏 본 적이 없는 60명의 가장 따뜻한 마음과 미소가 나를 반겼다. 그리고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병원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 슬프고 우울한 장소가 빛과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면서 ... 예수의 얼굴 빛이 저들에게 비치는지라”(니파이삼서 19:25)

우리는 제일 먼저, 폐렴 때문에 호흡기를 끼고 있는 아주 어린 소년을 방문했다. 소년의 어머니가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자매들은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말하며 그녀를 위로했다. 이 선한 자매들의 위로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가 느끼는 희망과 행복을 나는 볼 수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마가복음 11:22)



그 다음으로 우리는 어린 아들을 간호하던 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아들이 우리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아들을 휠체어에 태웠다. 자매님 한 분이 그 소년에게, 꼭 그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청바지를 한 벌 주었다. 소년은 매우 기뻐하며 “나가게 되면 바로 입을 거예요.”라고 내게 말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누가복음 3:11)

우리는 이제 막 출산을 한 십대의 산모들도 만났다. 한 명은 이제 겨우 열네 살이었는데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했다. 자매들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위로해 주었으며 많은 현명한 조언들을 해 주었다. 자신의 많은 문제들을 제쳐두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려는 이



위: 한 소년은 꼭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청바지를 한 벌 받았을 때, “나가게 되면 바로 입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아래 왼쪽: 한 남자 아기와 그의 엄마가 차우카 부장과 한 상호부조회 자매에게서 선물과 격려를 받고 있다. 아래 오른쪽: 방금 아기를 출산한 십대 산모가 상호부조회 자매의 따뜻한 미소에 힘을 얻고 있다.

오른쪽: 파니 만두하노  
우르키아가 자매(왼쪽)가  
아기가 죽은 산모를  
위로하고 있다. 아래  
왼쪽: 딸이 몹시 아픈  
한 여인이 리아호나 한  
부와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아래  
오른쪽: 닐라 마차도 데  
빌라 누에바, 페루 리마  
코마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이 어린  
소녀를 격려하며 선물을  
주고 있다.



홀륭한 시온의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너희가 ...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모사이야서 18:8)

어떤 병실에 한 여인이 식물 인간이 된 딸의  
침대에 혼자 앉아 있었다. 여러 날 동안 그  
어머니는 병원에 머물며 그 곳에서 잤는데, 집이 그  
도시와 멀어서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영감을 받고 말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권 소유자입니다. 제가 따님께 축복을  
주어도 괜찮겠습니까?”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그녀는 “그럼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때에  
느꼈던 그런 감정을 전엔 결코 느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하고 있음과 그 작은  
소녀를 축복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다.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마가복음  
10:16)

자매들은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어머니에게  
리아호나 한 권을 주며 다음에 다시  
방문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13~14)

방문을 마치고 돌아갈 때, 나는 그 날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 하나 하나가 새롭게 느껴졌다.  
자매님들의 아름다운 미소를 보면서, 나는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그들에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과 같은 참된 기쁨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요한복음 13:17) ■

빅토르 길레르모 차우카 리베라는 페루 리마 코마스  
스테이크 라 마르 와드의 회원이다.



# 알고 계십니까?

##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박해로 인해 한 동안 성도들과 공개적으로 만날 수 없었다. 1842년 9월 1일에 예언자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말씀을 전했다. 이 편지가 지금의



교리와 성약 127편이며, 여기에는 죽은 자들의 침례에 관한 중요한 계시들이 담겨 있다.

“진실로 너희 죽은 자에 관하여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죽은 자를 대신하여 침례를 받을 때에는 한 사람의 기록계를 두어 저로 하여금 너희가 받는 침례의 목격자가 되게 하며 저의 귀로 듣게 하여 이로써 그것이 진실함을 증거하게 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기록하는 바는 모두 하늘에서도 기록되나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교리와 성약 127:6~7)

성도들은 돌아가신 사람들을 위해 침례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다. 예언자의 이러한 가르침은 그들이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의식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여전히 성전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 자신의 지식에 대해 테스트해 보십시오.

4년간의 준비 끝에 요셉 스미스는 9월의 어느 이른 아침 구모라 언덕으로 가서 금판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몰몬경을 번역하는 중요한 일을 시작했다. 여러분은 몰몬경의 번역과 초판 출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1. 요셉 스미스는 9월에 처음으로 금판을 받았다. 몇 년 몇 월 몇 일에 받았는가?

- ㄱ. 1822년 9월 21일
- ㄴ. 1823년 9월 22일
- ㄷ. 1827년 9월 22일

2. 요셉 스미스는 금판을 1년 이상 갖고 있었지만 매일 번역을 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몰몬경을 번역하는 데에는 약 며칠이 걸렸는가?

- ㄱ. 60일
- ㄴ. 80일
- ㄷ. 100일

3.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서기로 일했다. 몰몬경의 가장 많은 부분에서 요셉 스미스를 도운 사람은 누구인가?

- ㄱ. 마틴 해리스
- ㄴ. 올리버 카우드리
- ㄷ. 엠마 스미스

맨 위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사진: 캐나다 앨버타 카드스톤 성전 침례실 © INTELLECTUAL RESERVE, INC., 무단 복제 금지; 그림: 델 파슨, 몰몬경을 번역하는 요셉 스미스; 로렌조 스노우의 그림; 그림: 미네르바 케이 티처트, 손수레 가족; 그림: 시 시 에이 크리스티슨, 나무 전투 © 브리검 영 대학교 미술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재제작, 판권 소유

## 9월에 일어난 일

다음은 교회 역사에서 9월에 일어났던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다.

**1846년 9월 17일:** 나무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항복 협약의 위반으로 도시에서 쫓겨났다. 항복에 앞서 있었던 도시 봉쇄는 나무 전투로 알려지게 되었다.

**1860년 9월 24일:** 손수레 개척자 부대의 마지막 열 그룹이 1856년에서



1860년 사이에 평원을 건너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다.

**1898년 9월 13일:**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이 교회의 5대 대관장으로 성별되었다. 그 때 그의 나이는 84세였다.

# 리아호나

## 2003년 9월호

### 활용하기

#### 토론 제언

• “신앙으로 가르침”, 10쪽: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신앙은 그것을 받고자 하고 우리의 삶에서 행사하고자 하는 소망에 근거를 두고 내부에서 생기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자녀들이 신앙을 갖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그들의 인생에 반드시 닥쳐올 폭풍을 견딜 수 있도록 어떻게 가장 잘 준비시킬 수 있는가?

• “지극히 작은 자에게”, 44쪽: 한 스테이크장은 병원을 방문하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에 관해 말하며 그들의 경험을 특정한 경전 구절에 비추어 보았다. 경전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봉사하도록 고무시켜 줄 수 있는지 토론한다. 경전에 나온 특별한 경험을 한 가지 선택하여, 여러분의 반이나 가족이 봉사 활동을 계획하는 데 지침으로 쓸 수도 있다.

• “눈 위의 발자국”, 친2쪽: 여러분의 반원들이나 가족과 함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마태복음 19:26)라는 구절의 의미에 대해 토론한다.

#### 이번 호의 주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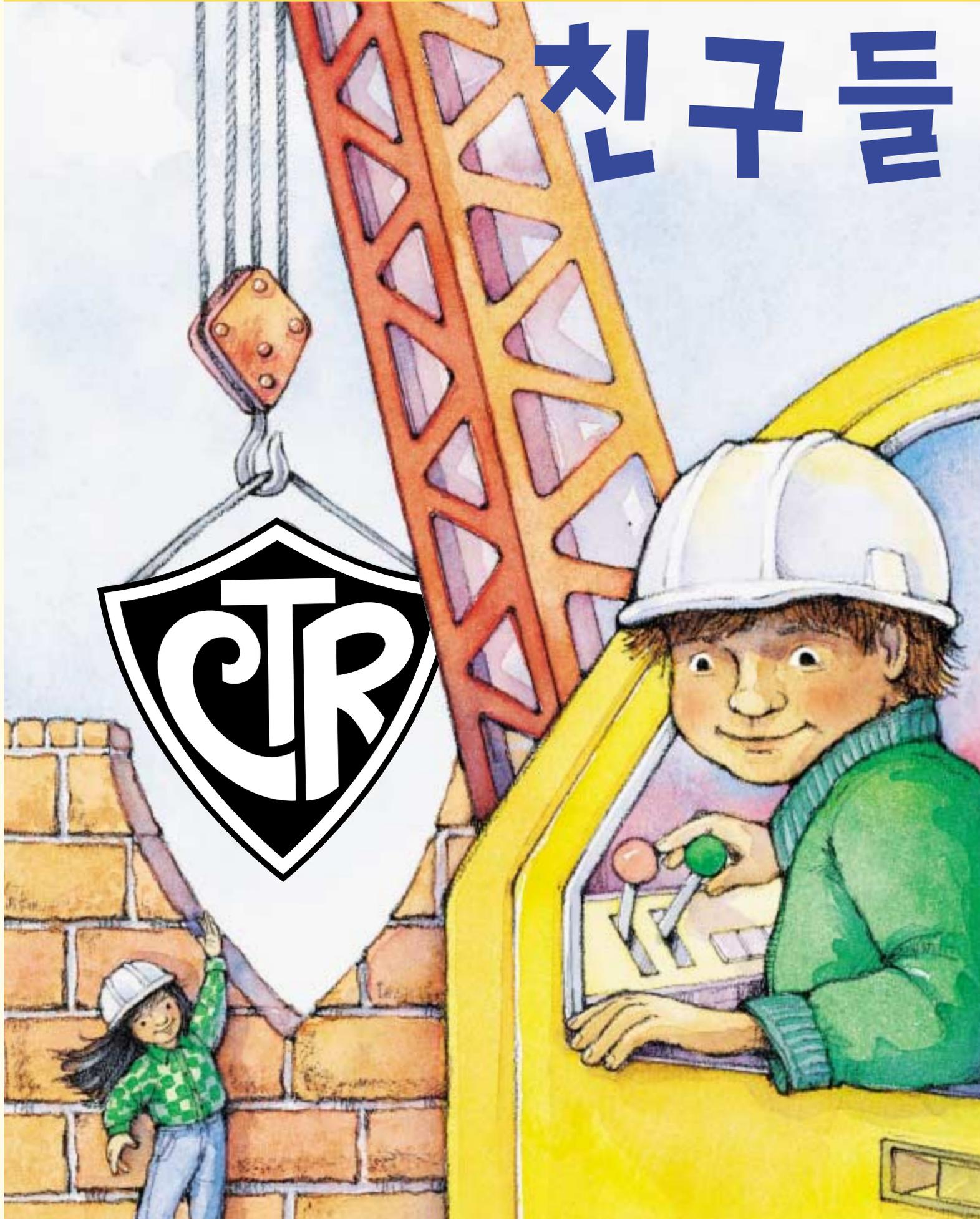
- 친= 친구들
- 가르침.....10, 48, 친8
- 가정의 밤.....48
- 가족 역사.....30
- 간증.....2, 10
- 개종.....친12, 친14
- 경전 공부.....2, 26, 40
- 계시.....25
- 고결성.....8
- 교만.....32, 40
- 교회 부름.....36
- 교회 역사.....47
- 몰몬경.....47
- 방문 교육.....25
- 봉사.....18, 32, 36, 44
- 비유.....32
- 사도.....36, 친10, 친12
- 사랑.....30, 40
- 선교 사업.....친2
- 성신.....10, 40, 친4
- 성전 및 성전 사업.....47, 친16
- 순종.....친4
- 신앙.....10, 40, 친2, 친10
- 신앙전서.....2, 32, 친10, 친12
- 역경.....26, 40
- 예수 그리스도.....2, 32, 44, 친12
- 예언자.....36
- 우정.....8, 22, 친8
- 우정 증진.....22, 친14
- 음악.....18
- 자유 의지.....친4
- 전세계적인 교회.....친6
- 준비.....25
- 지도력.....48
- 청소년.....10, 18, 24
- 초등학교.....친4, 친14
- 축복사의 축복.....22
- 회개.....40, 친8



#### 배부 센터로부터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족을 위해, 몰몬경 이야기(몰품 번호 35666 320)가 여러 언어로 출판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책은 자녀들에게 경전을 읽어 주고자 하는 부모님들이나 어린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단순한 문체로 된 몰몬경 이야기와 삽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삽화가 있는 이야기들은 또한 함께 나누는 시간이나 가정의 밤 공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가격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 배부 센터나, 와드나 지부의 지도자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친구들



# 눈 위의 발자국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우리가 만약  
주님께 봉사하기로  
결심한다면, 올바른 길을  
찾게 도와 주는 가장  
훌륭한 지침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셨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잠** 언에 있는 다음 약속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sup>1</sup>

주님은 다음과 같은 확신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주리라.”<sup>2</sup>

독일의 프렌츨라우에 살고 있는 발터 크라우제의 선교 사업은 실로 감동적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당시의 많은 사람들처럼 집을 잃은 크라우제 형제와 그의 가족은 코트부스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 살며, 그곳에서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 코트부스 지부를 인도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4개월 후인 1945년 11월에 지방부장인 리하르트 랑글라크 부장이 찾아와 그에게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크라우제 형제의 대답에는 교회에 대한 그의 각오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는 1945년 12월 1일에 20마르크와 마른 빵 한 조각을 갖고 떠났습니다. 지부의 한 회원이 전사한 아들이 남긴 겨울 외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다른 회원은 그에게 구두를 한 켤레 주었습니다. 이외에 셔츠 두 장, 손수건 두 장, 그리고 양말 두 켤레를 갖고 그는 선교 사업을 떠났습니다.

한번은, 한겨울에 프렌츨라우에서 메클렌부르크에 있는 카민이라는 작은 마을로 걸어갔는데 그 곳에서 가진 모임에는 4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큰 길과 작은 길, 그리고 흙을 파 놓은 밭을 지나 여섯 시간을 걸은 끝에 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기 직전에서야 그는 넓다랗고 하얀 평지에 이르러



쉽게 걸을 수 있었으며, 곧 한 회원 집에 도착하여 그 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렵구 관리인이 그 집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손님이 계십니까?”

“네”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 관리인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서 그가 온 길을 보십시오.” 크라우제 형제가 걸어왔던 커다란 평지는 다름 아닌 호수였습니다. 게다가 관리인이 얼마 전에 얼음 낚시를 하기 위해 호수 가운데 커다란 구멍을 파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눈을 몰아와 그 구멍을 덮어

버렸기 때문에 크라우제 형제는 그 위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걸어 온 발자국은 구멍 바로 옆으로 해서 회원의 집까지 일직선으로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배낭과 고무 장화의 무게로 인해 한 발자국만 잘못 걸어도 그는 분명 익사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주님께 봉사하라는 신권의 부름에 응하는 데 있어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의 능력에 의심이 느껴질 경우, 다음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sup>3</sup> ●

2002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주

1. 잠언 3:5~6
2. 교리와 성약 84:88
3. 마태복음 19:26

# 옳은 일을 선택하라

- |           |                        |   |   |
|-----------|------------------------|---|---|
| 1. 영어     | 가. Choisis le bien     |    |    |
| 2. 덴마크어   | 나. Piliin ang Tama     |   |   |
| 3. 네덜란드어  | 다. Filifili Mea Tonu   |    |    |
| 4. 프랑스어   | 라. Kies het goede      |   |   |
| 5. 독일어    | 마. 옳은 일을 선택하라          |   |   |
| 6. 이탈리아어  | 바. Velg det rette      |    |    |
| 7. 러시아어   | 사. Conserve a Tua Rota |   |   |
| 8. 우크라이나어 | 아. Choose the Right    |   |   |
| 9. 일본어    | 자. Wähle das Rechte    |   |   |
| 10. 타갈로그어 | 차. Vælg det rette      |  |  |
| 11. 통가어   | 카. Fili ki he Totonú   |   |   |
| 12. 핀란드어  | 타. せいぎをえらぶ             |   |   |
| 13. 스페인어  | 파. Haz lo justo        |  |  |
| 14. 노르웨이어 | 하. Scegli il giusto    |   |   |
| 15. 한국어   | 거. 選正義                 |  |  |
| 16. 스웨덴어  | 너. Välj det rätta      |   |   |
| 17. 사모아어  | 더. Выбирай истину      |   |   |
| 18. 포르투갈어 | 러. Выбирай правильно   |   |  |
| 19. 중국어   | 머. Valitse oikein      |   |   |

# 의의 일 하세

## 비키 에프 마주모리

###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 선량한 일을 행하라”(신명기 6:18)



여러분은 옳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톱 페리 장로님은 담배 갑을 발견한 한 소년과 그의 친구들에 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바위 밑으로 난 벼랑으로 내려가 그 담배를 피우기로 했습니다. 모두 담배에 불을 붙였는데, 그 청년은 자신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 둔 연기가 나는 담배를 내려다보다가 자신의 정의반 반지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재빨리 담뱃불을 [꺾습니다] ... 그는 이 상징이 나타내는 바를 기억하여 의의 일을 선택하여 생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리아호나, 1994년 1월호, 66쪽)

때때로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성신의 속삭임에 귀기울일 수 있습니다.

30여년 전에, 초등학교 지도자들은 어린이들이 옳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여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CTR이라고 새겨져 있는 방패 모양의 반지는 어린이들이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의 어린이들도 또한 이 상징을 볼 때 옳은 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위대한 축복은 우리가 성신에 귀기울이고 옳은 일을 할 때 옵니다. 페리 장로님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올바른 일을 하기로 선택한다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리아호나, 1994년 1월호, 68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정의반 반지

정의반 반지를 만들기 위해, 직사각형 부분을 잘라 내어

점선을 따라 접는다. 여러분 손가락에 맞는 고리를 만든 후, 양 끝을 풀로 붙인다. 여러분 나라의 말로 된 정의반 방패를 색칠한 후 잘라 내어 반지에 붙인다. 그런 다음 “옳은 일을 선택하라”는 뜻의 여러 나라의 문장과 언어를 짝짓는다.

###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성신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낱말 스트립을 제시한다. 우리와 함께 거한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우리에게 증언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 준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우리가 온갖 진리를 알도록 도와 준다. 어린이들에게 다음의 성구를 찾아서 소리 내어 읽게 한다. 요한복음 14:16~17; 요한복음 14:26; 요한복음 16:13; 히브리서 10:15; 니파이이사서 32:5; 니파이삼서 28:11; 모로나이서 10:5. 어린이들에게 성구와 낱말 스트립을 짝지어 보게 한다. 한 어린이를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어린이에게는 낱말 스트립을 숨기게 한다. 옳은 일을 선택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른다. 나갔던 어린이에게 낱말 스트립을 찾게 하는데, 그 어린이가 낱말 스트립 가까이 가면 어린이들이 노래를 더 크게 부르고 낱말 스트립에서 멀어지면 노래를 작게 불러 찾는 일을 돕게 한다. 다른 낱말 스트립과 성구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17절을 읽는다. 어린이들에게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해서 성신의 영향력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격려한다.

2. 초등학교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나의 복음 표준(리아호나, 1999년 4월호, 친8~9쪽)을 읽고 각 그룹이 그 중 한 가지 표준을 선택하여 종이에 쓰게 한다. 그런 후 그것에 대한 한 예를 생각해 본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65~166쪽 참조) 종이들을 바닥에 뒤집어 놓는다. 돌아가면서 모래 주머니나 다른 작은 물건들을 종이 위로 던져서 표준을 하나 선택하게 한다. 해당 그룹이 그 표준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다른 어린이들에게는 그 표준에 따라 사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

# 우리를 보살피 주신 선생님





탐라 플레이크 크리서  
실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요한복음 10:14)

**맨**디\*와 나는 어릴 때 같은 와드 지역에 살았던 친구였다. 우리는 초등학교에 함께 다녔다. 그 애는 친형제 자매가 하나도 없었고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그 애의 엄마는 교회에 거의 나오지 않으셨다.

그 당시는 초등학교가 평일 오후에 열렸다. 초등학교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우리 반 여자 애들 몇 명이 맨디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을 했다. 맨디는 울면서 집으로 갔다.

나중에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출석을 부르셨는데, 맨디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잠시 가만히 계시더니 맨디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으셨다. 교실은 조용해졌고, 몇몇 여자 애들은 자리에서 움찔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선생님이 아시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초등학교 선생님께서는 준비하셨던 공과를 제쳐 두고, 내가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선생님은 일어서시더니 우리 모두가 맨디의 집으로 가서 사과를 하고 우리의 우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맨디의 집까지 두세 블록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애가 퐁퐁 붓고 빨개진 눈으로 현관문을 나왔을 때 분위기는 매우 어색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과를 했고 맨디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 우리의 우정은 다시 새롭게 되었으며,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렸다.

맨디는 그 날 초등학교로 돌아왔다. 그녀는 매주마다 계속해서 교회에 왔고 충실한 청소년으로 남았다. 그녀는 자라서 귀환 선교사와 성전에서 결혼했다. 현재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교회에서도 매우 활동적인 회원이다.

나는 우리들을 지극히 보살펴 주셔서 잃은 양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회개를 가르쳐 주신 초등학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분의 모범을 통해 나는 맨디를 비롯한 우리 각자가 선생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교훈을 나는 결코 잊은 적이 없다. ●

\*가명 사용



1. 봉쥬리! 제 이름은 로렌스입니다. 저는 예술과 건축으로 유명한 커다란 도시 근처의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어요.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가정에는 자녀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구가 아주 명인 우리 가족은 정말 눈에 쉽게 뜨입니다! 성전에 가기 위해 우리 나라의 어떤 회원들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성전까지 여행해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네덜란드의 헤이그 성전으로 갑니다.



2. 제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저는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에 살아요. 저는 집에서 아이마리어를 쓰고 학교에서는 스페인어를 배웁니다. 우리 가족은 저녁에는 주로 감자를 먹습니다. 저는 엄마가 우물에서 물 길어 오시는 일을 종종 도와 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코차밤바라는 도시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3. 제 이름은 라니예요. 저희 집은 아름다운 섬에 있어요. 우리 나라 사람의 거의 반이 교회 회원입니다. 저는 고기와 코코넛 우유를 넣고, 타로와 바나나 잎으로 싸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성전은 누쿠알로파라는 우리나라 수도에 있습니다.



4. 제 이름은 아이삭입니다. 우리 마을은 바나나 나무와 아자수, 고사리, 대나무가 가득한 아름다운 초록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저는 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1978년에 첫번째 선교사가 우리 나라에 왔으며, 지금 아바 시에서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 젠 핀보로우

여러분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어린이들이 100여개 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위에 적힌 힌트들을 읽어 보세요. 그런 다음 각 어린이와 그가 살고 있는 나라들을 지도에서 연결해 보세요.

온 사





5. 제 이름은 사라예요. 저는 일리노이 나무에 있는 작은 도시의 큰 강 옆에 살아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초기 교회 회원들이 1840년대에 바로 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 곳에 세운 아름다운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최근에 다시 지어졌어요.



6. 제 이름은 네일입니다. 우리 나라의 인구는 약 10억이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라는 종교의 관습에 따라 살아요. 제가 살고 있는 커다란 도시 뉴델리에는 교회 지부가 두 개 있어요. 엄마와 아빠와 저는 가족 인봉을 받기 위해 중국 홍콩 성전까지 여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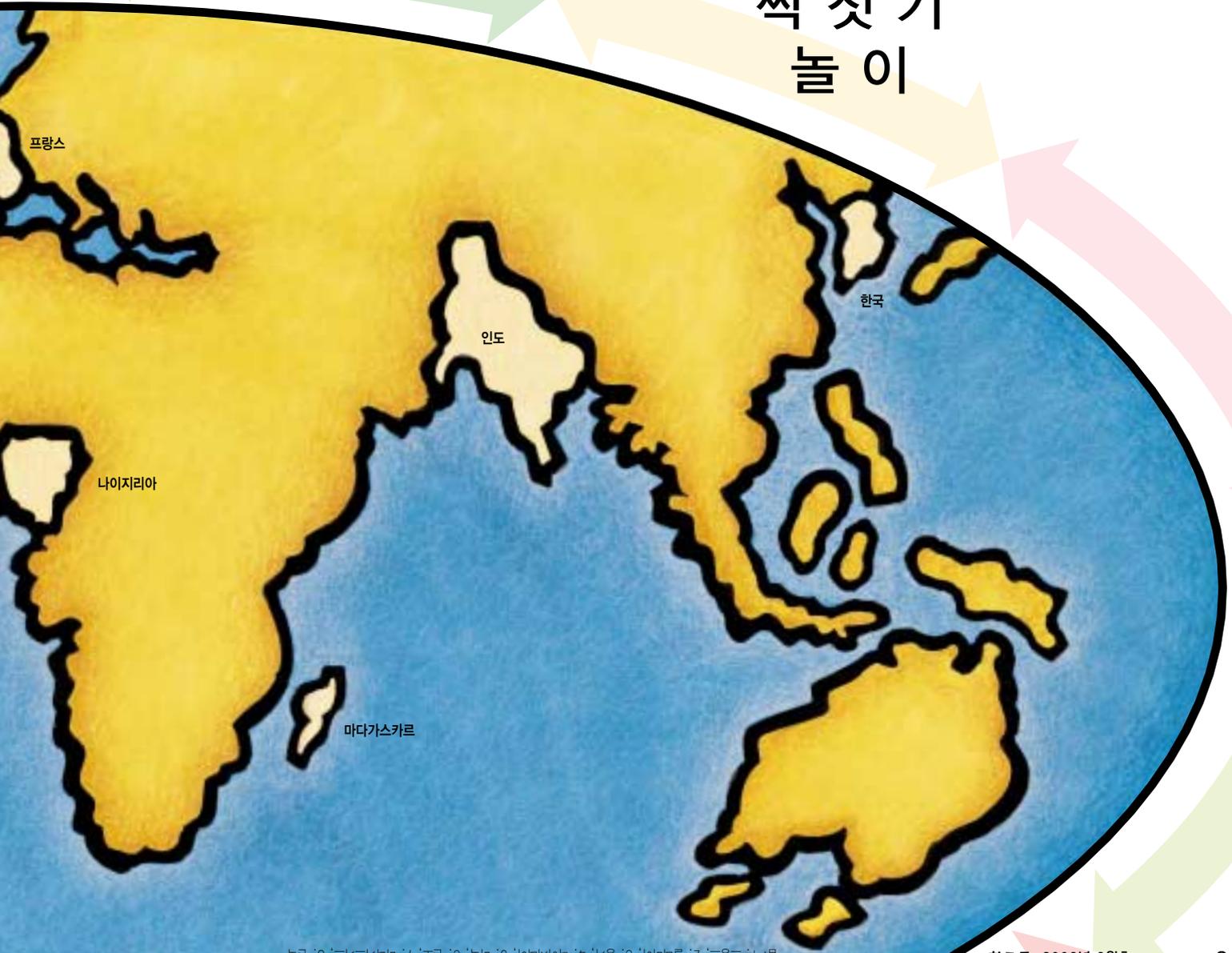
7. 제 이름은 노부토예요. 저는 두 가지 언어로 말해요. 학교에서는 프랑스어, 집에서는 마다가스카르어를 쓰지요. 아주 커다란 섬인 우리 나라에는 여우 원숭이를 비롯해 흥미로운 동물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을 받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까지 여행했는데, 집을 팔아서 여행 경비에 보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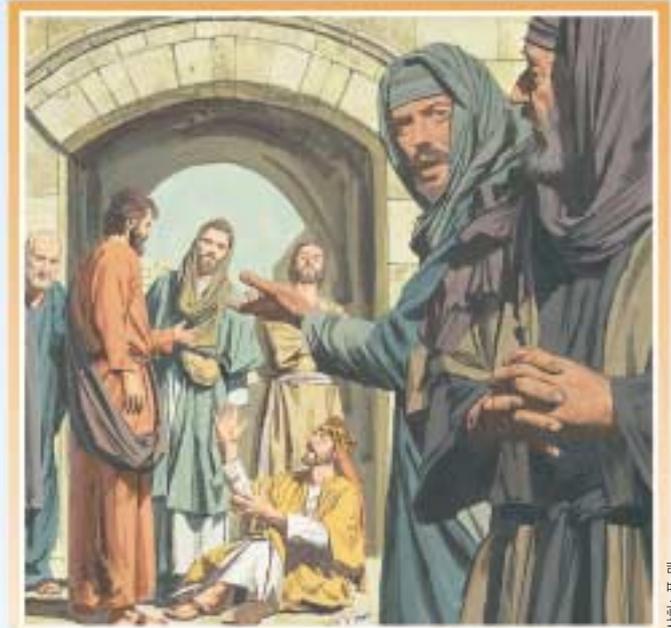
8. 제 이름은 영진입니다. 저는 동해 근처의 도시에 살고, 비닷가에서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몇세 동안 학교에 가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놓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휴일은 어린이날과 설날입니다. 저는 서울로 여행하여 성전을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 상 에

## 짝 짓 기 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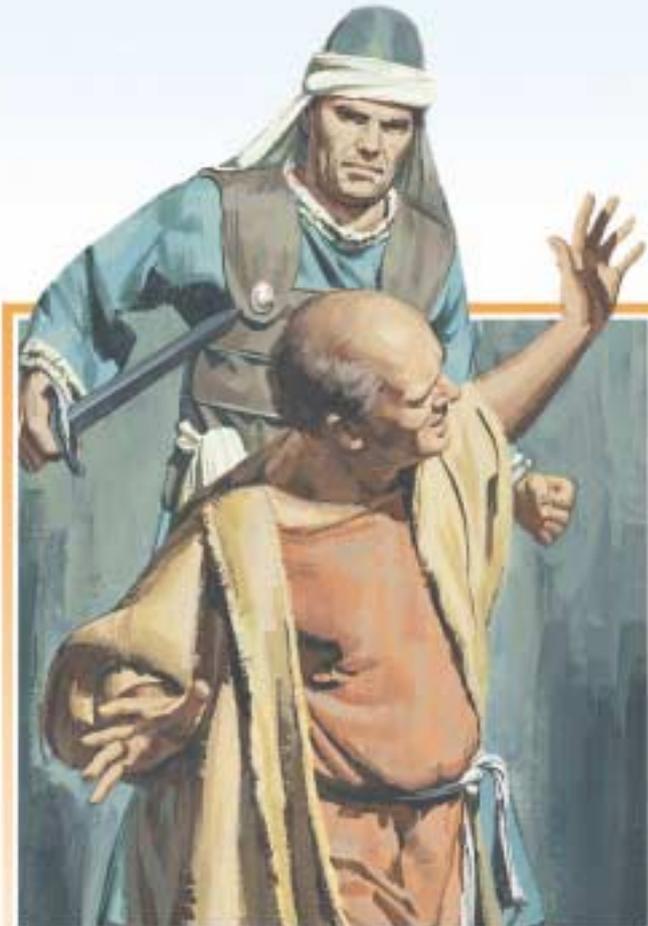
# 사악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죽이다



성경  
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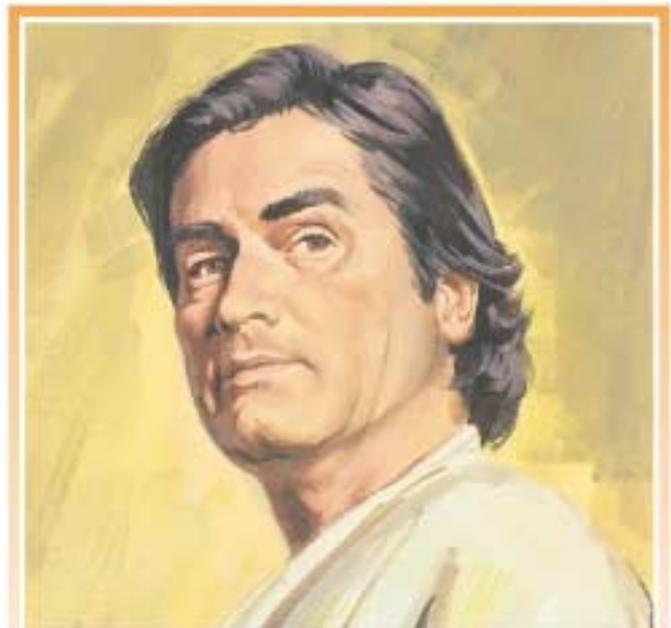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기적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기적들을 사도들도 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4:1~4, 13~17; 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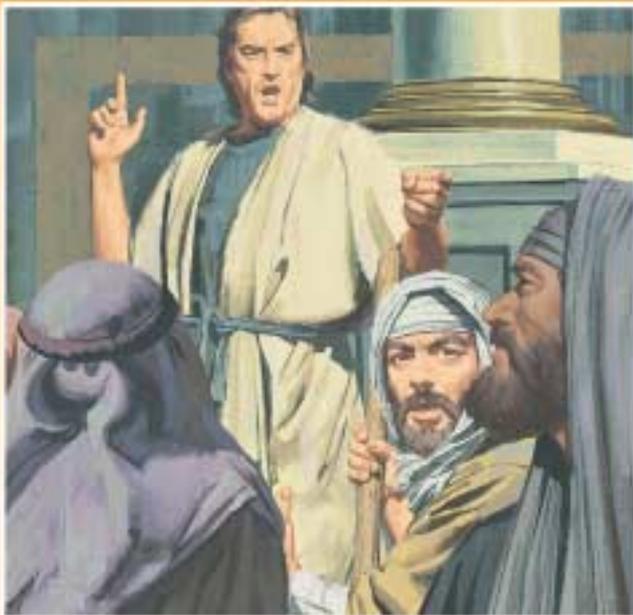
사도들을 두려워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 아그립바왕은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4:3; 12:1~2



사도들은 교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부름을 주었습니다. 스테반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성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스테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6: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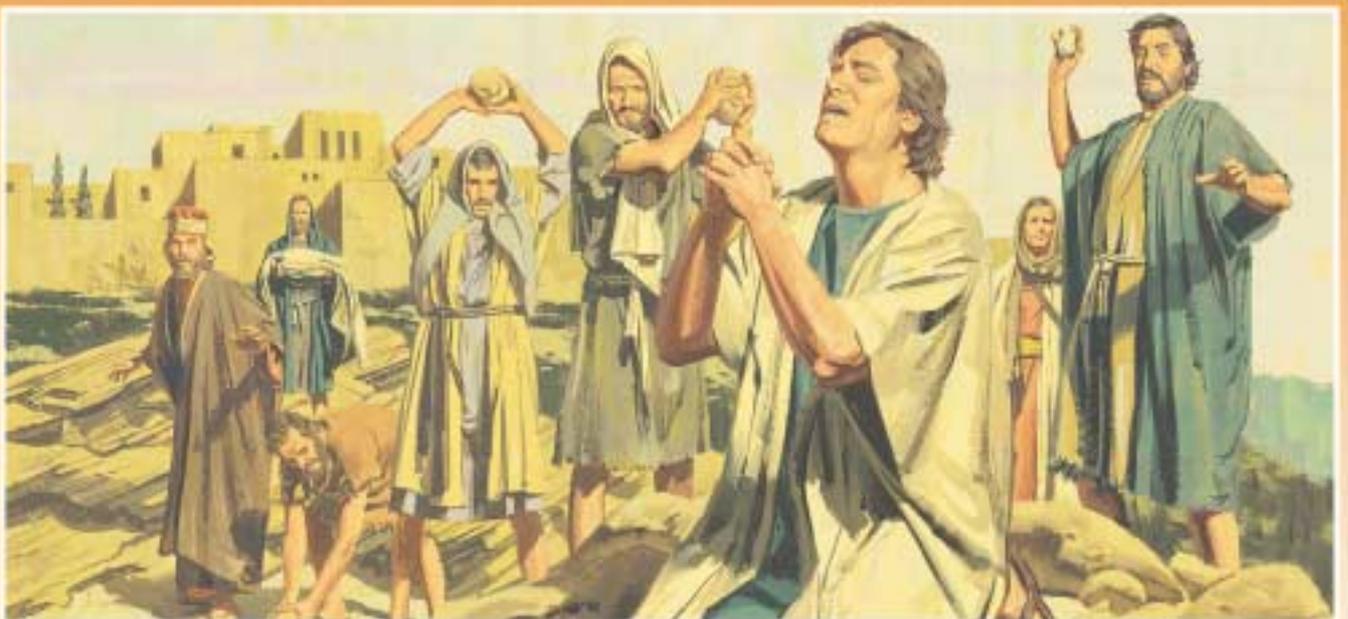
스테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사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51~52



스테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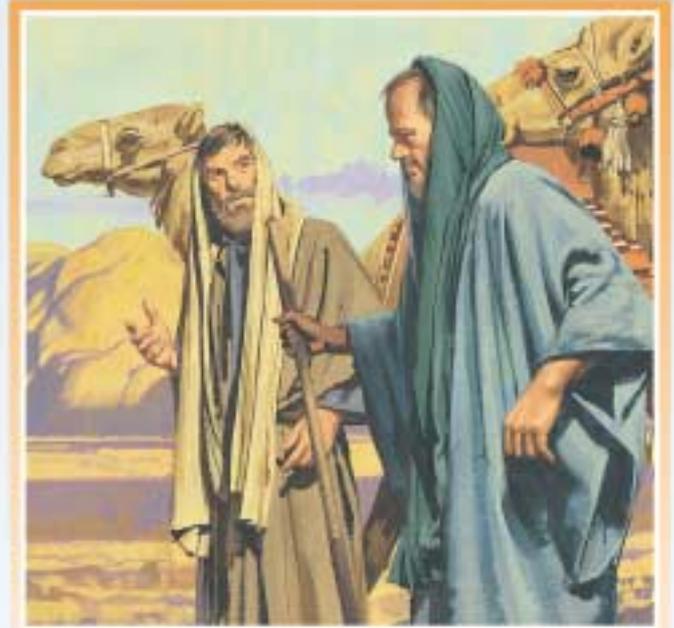
사도행전 7:55~56



화가 난 사람들은 스테반을 죽이기 위해 성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후에 바울이라 불린 사울이라는 젊은 바리새인 옆에 자신들의 옷을 두고, 스테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스테반은 죽어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 달라고 구세주께 부탁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숨졌습니다.

사도행전 7:57~60

#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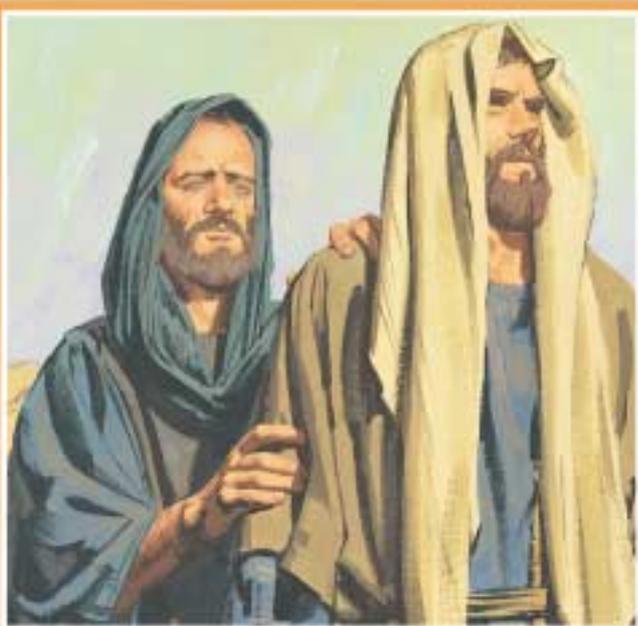
바울은 사람들이 스테반을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더 많은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 몇몇 친구들과 함께 다메섹 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58; 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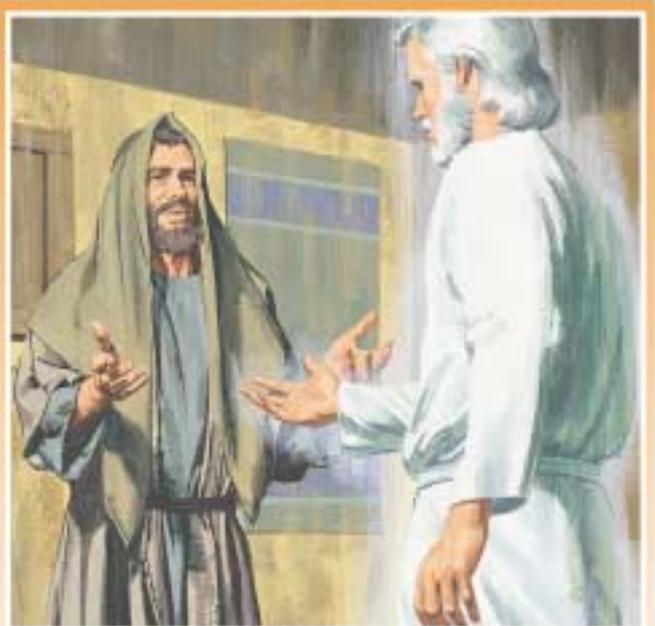


갑자기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런 후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으며, 그 음성은 왜 성도들을 해치려 하느냐고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바울은 무서웠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다메섹에 가면 그가 알아야 할 것들을 듣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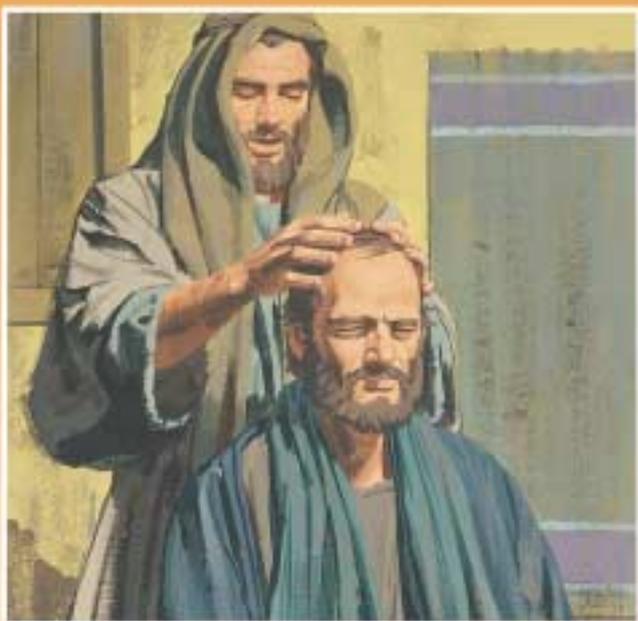
사도행전 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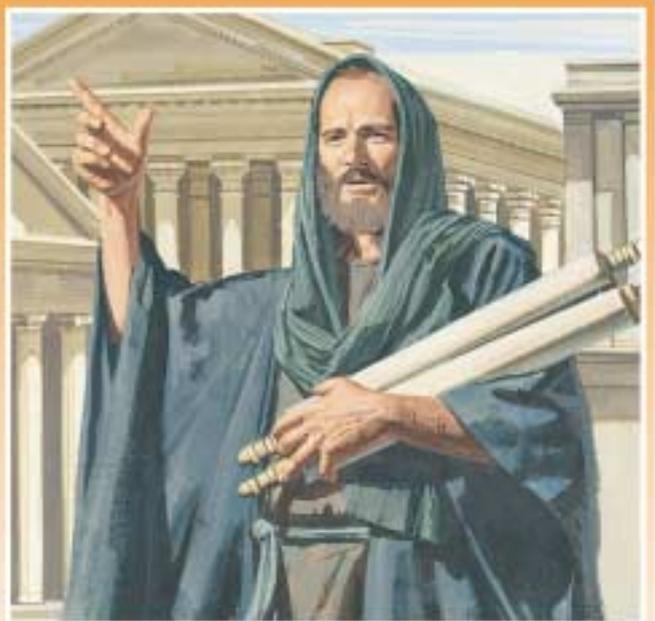
바울은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다메섹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도행전 9:8~9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현에서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10~11



아나니아는 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울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바울이 다시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 아나니아는 바울을 침례하고 성신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17~18



바울은 교회를 위해 일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는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자, 바울이 사도로 성임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16~23; 로마서 1:1

친구가 친구에게

# 우린 초등학교에 갈거야



로버트 알 스튜어 장로의 인터뷰에서, 할러리 엠 헨드릭스가 인터뷰했다. 스튜어 장로는 현재 브라질 북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8:3)

**우**리 가족은 제가 두 살 때,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독일에서 태어나셨고 루터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라면서 사귀었던 친구들 중 많은 아이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을 때, 친구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린 초등학교에 갈거야. 너도 같이 갈래?” 그





위: 일곱 살 때; 네 살 때; 브라질로 선교 사업을 하러 가기 직전; 아내 마가렛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당시에는 초등학교가 평일에 열렸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따라 갔습니다. 공과를 듣고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제게 관심을 보여 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초등학교 노래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몇 주 후에, 초등학교 선생님은 제게 교회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부모님에게도 배울 것을 권했습니다. 와드 선교사들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부모님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기로 결정하셨지만, 제가 교회에 매우 가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저는 침례 받아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저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계속 초등학교에 나갔지만, 일요일 모임에는 이따금 참석했습니다.

열두 살이 되었을 때, 감독님은 저에게 집사가 될 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권을 통해 교회에 그분의 권세를 주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다면 제가 성찬을 전달하고, 복음을 가르치며, 언젠가는 아프거나 슬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신권 축복을 주는 등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일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권을 받고 그런 소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저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성임 받을 때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성찬을 전달했던 그 다음 주 일요일이 기억납니다. 저는 단상에 계신 감독님으로부터 다른 분들께 빵을 전달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성찬기 손잡이가 빠지는 바람에 성찬기와 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독님이 제게 오시더니 팔로 저를 감싸 주시며, 속삭이셨습니다. “빵을 주워서 성찬기에 담으면 된다. 그런 후에 다른 사람들이 빵을 다 돌릴 때까지 여기 앉아 있다가 물을 전달하자꾸나.” 다행히도 물은 아무 문제없이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감독님의 친절하고 따뜻한 말씀 덕분에 저는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에 대해 큰 사랑을 느꼈고 그 분이 제 감독님이어서 기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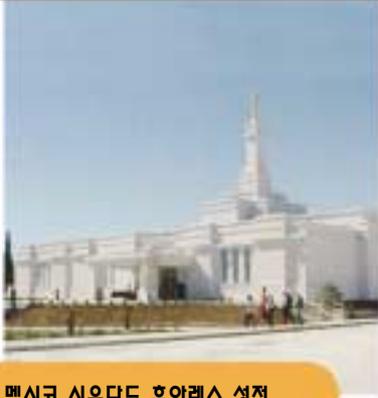
제가 제사였을 때, 정원회 고문은 우리가 만약 일요일에 숙제하는 일을 멈추고 경전을 읽는다면 우리의 성적이 향상되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때 제가 그 고문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온 생애 동안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저는 요셉 스미스가 말일에 교회를 회복한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내내, 교회 지도자들은 저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제가 열다섯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매우 중한 병에 걸리셨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벌기 위해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었지만 선교 사업을 위해 어떻게 저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때, 와드의 장로 정원회 회장님은 정원회가 제 선교 사업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겠다는 그 분들의 말씀을 듣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아내와 아이들은 저와 함께 브라질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교회의 어린이 여러분에게 지도자들이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잘 지켜보시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여러분도 자라서 의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 참석했을 때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을 교회와 초등학교 활동에 초대하십시오. 그들도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움으로써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

# 성전 카드

2003년에는 친구들 각 호마다 성전 카드가 실립니다. 잡지에서 성전 카드를 잘라 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이고 오려 내십시오. 성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기 위해 카드를 모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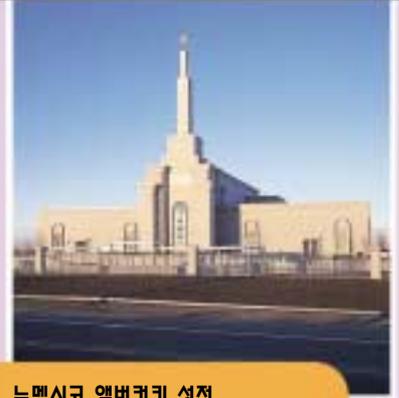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 성전**

2000년 2월 26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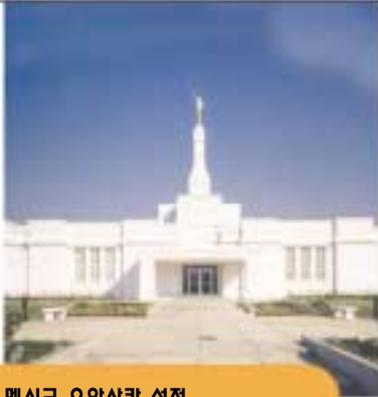
**멕시코 에르모시오 소노라 성전**

2000년 2월 27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뉴멕시코 앨버커키 성전**

2000년 3월 5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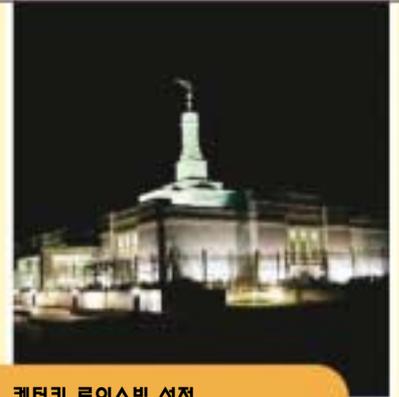
**멕시코 오악사카 성전**

2000년 3월 11일,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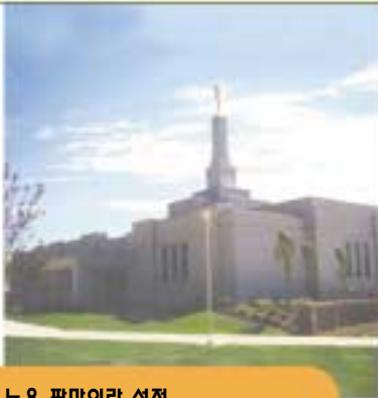
**멕시코 투스틀라 구티에레스 성전**

2000년 3월 12일,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헌납함



**켄터키 루이스빌 성전**

2000년 3월 19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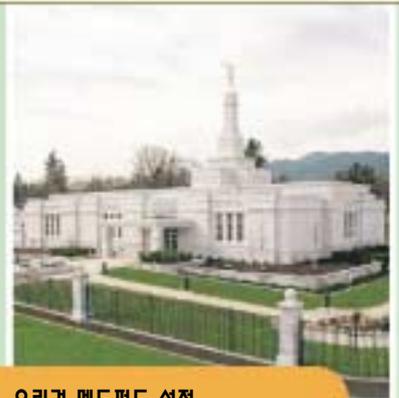
**뉴욕 팔마이라 성전**

2000년 4월 6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성전**

2000년 4월 9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오리건 메드퍼드 성전**

2000년 4월 16일,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헌납함